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

地政學的으로 본 南北韓의 強弱點 比較

研究執筆責任 曹 淮 煥 (政博: 韓國外大)

刊行責任 金 淳 培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概 要	3
I. 序 論	5
1. 問題의 提起	5
2. 研究目的과 方法	7
II. 領土의 重要性과 意義	9
1. 領土의 意義	9
2. 國家와 領土의 關係	11
3. 領土의 三重意義	13
III. 數理的位置과 國民生活	16
1. 南北의 數理的位置 概觀	16
2. 南北의 生活環境	18
3. 南北의 知·德·體	31
IV. 地理的位置과 戰爭	
1. 南北의 地理的位置 概觀	37
2. 南進과 北進	41
3. 最後의 主人	53
V. 關係的位置과 外交	58

1. 南北의 關係的位置 概觀	58
2. 南北의 國際關係	60
3. 自主國과 附屬地帶	73
VI. 強者의 問題點과 使命	76
1. 国力과 強弱의 問題	76
2. 強者의 使命	82
VII. 結 論	86
註	88

概 要

南北韓이 서로의 地位를 打開하지 못한채 長期間 休戰線에서 對峙하고 있는 것은 綜合的国力이 暫定的이나마 均衡狀態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같은 均衡狀態의 境遇 国力에 長期的・持統的 및 決定的으로 作用하는 것은 領土이다.

領土는 三重效果를 갖고있다. 數理的位置(經緯度上的 位置)를 比較해 볼때 人間生活이 나타나는데 南韓은 北韓보다 氣候條件이 좋아서 人間活動에 有利하고 穀食・과일 및 副食이 더욱 豊富하거나 多樣하여 食生活이 優勢하고 住居와 服裝도 더 開放的이고 간편한 편이어서 自然과의 調和度가 높다. 이같은 現象은 生活圈이 同一할때는 平準化作用에 따라 지극히 작은 差異를 나타냈으나 分斷됨에 따라 相當히 큰 差異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南韓同胞는 知性面에서는 主로 氣候의 影響을 받아, 德性面에서는 主로 人間關係의 多樣性에서 影響을 받아, 그리고 健康面에서는 主로 食品의 影響을 받아 北韓同胞보다 優勢한 立場에 있다.

地理的位置(地勢와 地形)에서 比較해 볼때는 戰爭의 攻防樣相이 나타난다. 南韓에는 二江(漢江・洛東) 二山(太白・小白) 一海(多島海)의 要塞를 갖고 있으며 北韓은 一江(大同江) 三山(滅惡・狼林・威鏡山脈)의 要塞를 갖고있다. 南韓은 漢江要塞를 갖고 있는데 이곳은 韓半島全体에 큰 影響을 미침으로 重要하다. 不幸히 이곳을 놓친다 하더라도 太白山・小白山・洛東江이 막아주는 最後의 洛東江 要塞가 있다. 이곳은 背水陣이어서 防備가 튼튼함은 勿論 多島海要塞의 支援도 있어서 長期抗戰이 可能하다. 그러나 北韓은 大同江要塞가 튼튼하기는 하나 그 要塞를 빼앗겼다고

하면 蓋馬高原要塞가 있다고 해도 그곳은 生活이 어려울 뿐 아니라 陸統陣이어서 百姓이 滿洲로 離脫하게 되어 長期抗戰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歴史的으로 꼭 南方勢가 韓半島의 主人이 되었는데 地勢가 守勢形임에 留意하여 積極性和 攻勢性을 補完해야 한다.

關係的位置(他國과의 距離)에서 비교해 볼때 北韓은 強大國에 接續되어 있고 南韓에 對峙하기 때문에 自然히 가까운 強大國에의 依存度가 크고 接境된 關係로 接境한 強大國의 干涉이 커서 自主的位置에 서지 못한다. 또 同盟關係도 南北外勢와 東北外勢에 양다리를 걸쳐야 함으로 不安定하며 그중 어느 한 同盟國은 決定的 時期에 親韓路線을 걸게 된다. 이 過渡的瞬間에 北韓에는 無重力狀態가 생기는 反面 南韓은 最好의 國際關係가 樹立되어 無血平定의 好機를 갖는다. 또한 南韓은 交通의 要地여서 國際的 重視를 받아 友國이 많지만 距離關係로 그들은 協調에 그칠 뿐 지나친 內政干涉은 못하기 때문에 自主國으로 健在하는 長點이 있다. 다만 絶好의 機會를 만들기 위한 人爲的 努力의 하나로 統一外交를 強化할 必要가 있다.

韓半島 全體의 主人이며 強者인 南韓은 強者라고 滿足할 수는 없다. 다른 모든 人爲的 國力要素와 地理的 國力要素가 優越하다고 해도 瞬間의 虛點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며 이것에 對備하여 政府와 軍隊의 警戒役割이 重要하며 將次 到來할 同盟 또는 協調關係의 再編에도 留意하면서 國家富強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長期的으로 當然히 樂觀的이지만 瞬間의 虛點을 지켜야 하는 政府와 軍隊의 底力은 國民에게서 나오니 만큼 <政府·軍隊·國民間의 團合>이 韓半島의 地理的 特殊狀況에 最善의 調和이니 만큼 三者의 和合이 使命으로 抬頭된다.

1. 序 論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가 分断으로부터 입은 損失은 莫大하다. 法的·形式的要件이야 어떻든 北半部에 事實上 別個의 政府가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国土의 約 55%, 國民의 約 30%를 喪失하였다. 南北이 對峙함에 따라 國防費와 外交費등 莫大한 國家豫算을 追加支払해야 된다. 더욱 통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当初부터 分断되지 않았던들 国力伸張이 지금보다 훨씬 컸으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祖國의 再統一은 우리 民族앞에 提示된 가장 重要한 問題가 되었다.

現 段階에서 統一이 至上課題요 最高目標라고 한다면 目標를 向한 手段은 正當해야 된다는 立場과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立場이 있을 수 있다. 韓國(以下 比較의 便宜上 南韓이라 稱함)은 統一의 手段이 合理的·民主的·平和的이라야 한다는 心情倫理的 立場에 있고 北韓은 6.25南侵·武裝共匪 南派·間諜侵透등 武力 乃至 暴力에 呼訴하는등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責任倫理的 立場에서 있다. 統一이 民族의 至上課題라면 理論上으로는 責任倫理的 立場도 正當化 될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어느 立場이건 그것이 갖는 長단점이 있다.

첫째 武力統一을 正當視하는 立場에서는 武力行使가 南·北韓만의 单独 對決이 不可能하다는 弱점이 있다. 萬若 統一을 위하여 武力에 依한 南進 또는 北進이 斷行된다면 韓半島問題에 介入하고

있는 四強과 其他의 外勢도 介入할 것이 分明하다. 國際的 對決場이 되었을 때 外軍의 死傷은 論外로 하고라도 南北韓에 分布되어 있는 同族이 거의 滅種하고 大部分의 建設業積이 破壞되는 現實을 맞보아야 한다. 一部 生存者가 廢虛化한 韓半島의 主人이 되기 以前에 畢竟 어느 하나 또는 多數의 外勢가 韓半島를 独占 또는 分割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平和統一方式만이 옳다고 보는 立場에서는 統一의 時期를 無期延期하는 弱點이 있다. 事實 休戰以後 停戰委會談·南北赤十字會談 調節委員會등이 여러 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期待되는 成果는 거의 못 거두었다. 그 責任이 어느편에 있건 간에 바로 이것이 여태까지 展開되어 온 現實이었다면 未來에 對해서도 아무런 保障이 없다. 따라서 對話를 통한 統一·交流와 協力을 통한 統一의 時期가 안개 속에 묻히는 것이다.

이때문에 或者는 統一을 忘却한채 이대로 平和共存을 持統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것도 不可能하다. 그 理由는 첫째, 南·北의 同胞중 絶對多數가 分断狀態의 永統을 생각조차 않는다. 우리는 勿論이거니와 北韓同胞도 北傀의 不斷한 <平和統一> 宣傳에 接하고 있어서 統一을 念願할 수 밖에 없다. 둘째, 一方만이 平和共存을 渴求해도 所用이 없다. 여기에는 적어도 南北 雙方의 合意와 關聯 列強등의 保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젠가 統一을 안 하고는 못배긴다.

平和統一·武力統一 그리고 平和共存 어느것도 漠然하고 암담해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 統一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인다. 이같은

見解는 우리나라의 領土史(國土史)에서 暗示해 준다. 우리나라는 新羅의 三國統一以來 繼續 南方勢인 高麗와 李氏朝鮮이 主人이 되어 韓半島를 統一시켰다. 이대로 간다면 南韓도 結局 北韓을 統一할 主人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點이다. 果然 南韓은 北韓을 統一할 主人이 될 것인가를 檢討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領土란 國家構成要素의 一部에 不過하다. 그러나 領土는 그것을 背景으로 存在하는 國民과 政府에 거의 恒久的인 影響을 미친다. 領土가 미치는 影響의 大小가 나라마다 다른 것 같은데 萬若 韓半島에서의 경우 領土의 役割이 絶對的이라면 南方에 자리잡은 南韓도 絶對적으로 統一을 主導하는 勢力이 될 것이다. 여기서 南北을 地理적으로 比較 및 檢討해 보게 되었으며 여기서 成功한다면 南北의 優劣과 統一의 方法 및 時期도 推理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期待이다.

2. 研究目的과 方法

(1) 研究目的

南北問題와 關聯하여 생각되는 疑問點이 많다. 그러므로 或者는 韓半島問題를 越南에 聯想하여 보기도 한다. 따라서 筆者는 韓半島의 特殊性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그 바탕위에서 올바른 信念을 세워보려는데 第一次의 目的을 두고 있다.

우리의 特殊性을 認識한 바탕위에서 持續적이고 効果적인 方向으로 統一努力을 傾注하기 위함이 第二의 目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統一을 위한 우리의 努力이 더욱 알차고 効率的이기를 期待하

는 것이다.

끝으로 이 한편의 作品이 學者와 專門家의 檢討와 批判을 거쳐서 더욱 充實하고 正確한 分析이 나오게 하는 契機로 마련하려는 데도 目的이 있다.

(2) 研究方法

첫째, 韓半島의 土着的 性格을 重視하였다. 같은 半島이지만 韓半島는 나뉠의 特性이 있어서 發展形態가 발칸半島나 이태리 그리고 印度支那半島와 달랐다. 分断國이라고 해도 東西獨關係나 中共 台灣間의 關係와도 다르다. 무언가 特殊性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史的接近을 하였다. 土着性이란 <그 現場> (The Very Spot)만이 갖는 特性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發生했던 일들을古今에 걸쳐 全般的으로 調査함으로써만 發見할 수 있다.

셋째, 地理的條件에 바탕을 둔 人間行態의 觀察에 努力했다. 歷史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사람없는 時間과 사람없는 空間은 無意味하기 때문이다.

研究過程에서 나뉠의 知識을 動員해 보았으나 能力·時間·資料의 制限때문에 分析이 未盡한 部分이 많음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II. 領土의 重要性和 意義

1. 領土의 意義

領土란 한나라의 國權이 排他的으로 미치는 土地(領土)·領海 領空을 말한다. 領土上的 河川과 地下도 領土의 範圍에 包含됨은 勿論이다. 따라서 領土는 主權의 行使範圍이며 國民의 生存空間이다.

한 나라가 形成 및 保存되기 위해서는 必須적으로 領土가 있어야 한다. 領土가 갖는 意義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領土는 國家要素에서 不可欠의 要素로 指摘되고 있다. 古代의 孟子는 王國(侯國)의 三大寶具로 土地, 人民, 政事를¹⁾, 엘리베크(Jellinek)는 人民, 領土, 主權을²⁾, 게텔(Gettell)은 人口, 領土, 統治機構, 主權을³⁾ 提示했다. 古代와 現代, 三要素說과 四要素說이 모두 領土를 들고 있다.

둘째, 領土는 國力要素에서도 不可欠의 要素로 指摘되고 있다. 古代의 孟子는 ①人和 ②地理 ③時勢라고 順位까지 明示했다.⁴⁾ 現代의 代表的인 國力理論家들도 다음과 같이 國力諸要素 가운데 領土를 提示하고 있다.

Charles Lerche Jr : 地理, 天然資源, 戰略的位置

Frederick H. Hartmann : 地理的 要素, 經濟的要素

Hans J. Morgenthau : 地理, 天然資源

여기서 領土라는 用語代身에 地理, 地理的要素, 資源등으로 改稱했거

나 2~3個의 個別要素로 分類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領土인 것이다.

세째, 領土는 國家活動의 重要한 對象이 되고있다. "實際로 世界를 諸國家로 區劃한 것은 過去 歷史에 있어서의 冷酷한 實力行使의 結果였다" 5)는 말이 暗示하듯이 領土問題는 第一義的인 重要問題로서 窮極的으로는 生死를 건 戰爭으로 帰着되었다. 우리 歷史에서도 外敵의 侵入이 있을때 마다 「寸土」도 讓步할 수 없다는 悲壯한 決意들이 나오곤 했다.

네째, 領土는 한 나라의 外交政策을 決定한다고 한다. 獨逸外交官 쾰만 (Richard von Kühlmann)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했다.

"地理的 位置와 歷史의 展開는 重大한 外交政策決定要素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事態나 政府의 形態 또는 執權政黨에 關係없이 한 나라의 外交政策은 總體的 및 根本的으로 계속 同一하게 整頓되는 自然的 傾向이 있다" 6)는 것이다. 여기서 地理的位置란 領土를 말하는 것이다.

다섯째, 領土는 한 나라의 生活樣相에 큰 影響을 준다. 領土가 갖는 氣候, 植生, 地下資源등은 작게는 衣食住로 부터 크게는 國土開發, 文化開發, 行政區域, 政治樣相에까지 影響을 준다. 단지 나라마다 領土가 國家의 諸般領域에 미치는 影響力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地理決定說은 禁物이지만 地政學이나 人文地理學을 研究하는 모든 學者들이 民生에 對해 領土의 影響이 크다는 점에 對하여 共感하고 있다.

領土가 갖는 意義를 五個만 羅列하였으나 보는 角度에 따라 다른

意義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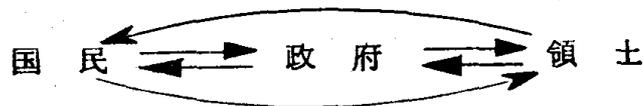
2. 國家와 領土의 關係

(1) 國家와 領土

모든 나라가 國家인 이상 國家要素를 갖고있다. 「領土의 意義」에서 보았듯이 國家要素說에는 엘리네크(Jellinek)를 대표로 하는 三要素說(人民, 領土, 主權)과 게텔(Gettelle)을 대표로 하는 四要素(人口, 領土, 政府, 主權)說이 있다. 人民, 人口 따위의 表現은 各者 趣味에 따른 表現일 뿐 國民을 뜻하는 同一概念이다. 따라서 兩說은 國民과 領土(또는 國土)에 對해서 一致하고 있다. 단지 三要素說에서는 主權을, 四要素說에서는 政府(統治機構)와 主權을 提示함으로써 異見을 보이고 있다. 政府와 主權이 同一物이냐 아니냐는 點이다. 여기서 主權은 對內的으로 最高性을, 對外的으로 獨立性을 갖는것이 特徵이다. 그런데 主權이 人民으로부터 나온 權力이든지 專制的인 權力이든지 간에 對外的으로 獨立性이 表現될 때나 對內的인 最高性이 發動될 때나 出口가 一元化되어 꼭 政府를 經由하여 나온다. 即, 主權의 所在가 어디에 있던간에 그 行使는 政府의 專有物이 되어있다. 따라서 主權과 政府는 表裏關係에 있다. 換言하면, 主權은 알맹이로서의 裏面이요 抽想的인 精神이라면, 政府는 알맹이를 담고있는 겉데기(表面)이며 具體的인 裝置이다. 그러므로 核心을 重視한 見解는 政府라는 表皮를 구태여 別個視할 必要가 없으며 具體와 抽想에 着想한 見解는 政府와

主權을 分類한 것이다. 그러나 主權없는 政府는 聯邦國의 省이나, 地方自治國의 道, 또는 市를 意味한다. 따라서 表裏關係에 있는 主權과 政府를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그러면 兩者中 어느것으로 表記하느냐가 문제인데 選拔權은 各者 취향에 맡길 수도 있으나 既往 國家라는 實體의 要素를 提示하는 바에야 具體的인 것이 어울릴 것이므로 「政府」쪽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提示하면 國家要素를 具體的인 것과 抽象的인 것으로 二分하여 다시 몇 개씩의 要素를 提示하려는 畵단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三要素說을 定立했을때 國家의 構造는 다음과 같은 圖式이 되겠다.



여기서 領土는 國家를 構成하는 三要素中의 하나이며 다른 要素인 國民 및 政府와 함께 國家를 構成함으로 三者가 相互作用을 通해 하나의 全體가 됨을 알 수 있다.

(2) 韓半島에서의 決定的 国力要素

南·北韓은 서로 統一의 主導者가 되기 위하여 努力 및 競争하고 있다. 北韓은 人口의 劣勢를 軍事力으로 報償하려 하고 있고 産業能力의 劣勢를 住民의 劃一的強制勞動으로 挽回하려 한다. 또 政府의 質的 劣勢를 外交力으로 挽回하려고 안간 힘을 쓰기도 한다. 大體的으로 南韓보다 劣勢이지만 첫째 이 要素들은 流動的

要素들이어서 時間的으로 優劣에 起伏이 있고 둘째 現實的으로 休戰線을 進退시키지 못한 채 休戰線을 均衡線삼아 對峙하고 있기 때문에 人爲的·可變的要素들인 國民的要素와 政府的要素에서 南北은 大體로 均衡狀態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南北의 앞으로의 運命은 自然的 不變的要素가 左右하게 된다. 換言하면 人爲的要素들은 雙方 모두 陰陽의 原理 即 相互對應原理에 따라 거의 비슷한 水準으로 進展될 短期的 現象이라면 自然的要素들은 꾸준히 人爲的要素에 作用하게 되는 長期的現象이다.

여기서 모든 國際政治學者들이 地理的條件을 国力要素의 最重值로 보는 것이 特徵이다. 모겐쑤는 가장 確固한 要素(The most stable factor)로 表現한다. 맥킨더(Sir Halford Mackinder)와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등 地政學者는 다른 여러條件이 비슷하다면 심장地帶(Heart band)를 占有한 側이 決定的 役割을 한다고 보고 있다.⁷⁾ 이는 우리의 歷史에서 累次 겪었던 바로써 韓半島에서의 地政學的 役割은 特히 決定的인 것이었다. 따라서 南北문제를 研究함에 있어서 領土的要素의 重要性은 서로 相殺可能한 다른 要素와는 달리 韓半島問題를 決定짓는 것이기 때문에 將來의 進展에 1/3의 영향만 發揮하는 것이 아니고 決定的 役割을 하게 됨을 注目해야 될 것이다.

3. 領土의 三重意義

韓半島問題에 決定的 役割을 하게되는 領土의 特性을 地理學者

들은 세가지 側面으로 나눈다. 數理的 位置, 地理的位置, 關係的位置가 그것이다. 8)

첫째, 數理的位置이다.

數理的位置란 絶對的位置라고도 하며 經度와 緯度라는 數值로 表現되는 位置이다. 이 位置에서는 緯度와의 關係때문에 氣候를 가르쳐 주고 緯度, 經度와의 交叉點을 連結함으로써 地形과 規模(面積)을 가르쳐 준다. 또 氣候와 關連됨으로 地上資源 即 食糧, 木材등 植生도 暗示해준다.

둘째, 地理的位置이다.

地理的位置란 純粹地理的 意義를 갖는 것으로써 地勢一般을 가리킨다. 即, 어떤 領土가 갖고있는 山河, 國境線과 海岸線, 섬, 內陸등을 對象으로 한다. 따라서 河川은 平野의 分布를 가르쳐 주고 山은 交通의 便宜에 障礙임을 가르쳐 주면서 同時에 戰時의 要塞을 構成한다. 內陸과 海岸線은 保守와 革新, 大陸指向과 海洋指向이라는 相反된 性向을 나타내 준다.

셋째, 關係的位置이다.

關係的位置는 純粹位置의性格에 着眼한 것으로서 國際政治學者들의 이른바 位置(Location Position)를 意味한다. 여기에서는 他國과의 距離, 隣接國의 強弱으로 因한 相對的 強弱關係, 海峽, 交通路등 側面에서 본 國際的 國際戰略的關係등의 特徵을 보여준다.

領土가 갖는 이와같은 三重意義는 한 나라가 갖는 地政學的條件을 남김없이 고찰하기 위한 가장 完全한 分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의 南北對峙의 樣相을 窮極的으로 決定지어 줄
南北間의 地理的 強弱點을 數理的位置, 地理的位置 및 關係的位置에
서 分析 및 比較하기로 한다.

Ⅲ. 數理的位置와 國民生活

1. 南北의 數理的位置 概觀

우리나라의 數理的 位置는 東經(E)과 北緯(N)로 表示된다. 西經(W)이나 南緯(S)는 該當되지 않는다. 섬까지 包含한 境遇와 半島만을 計算한 境遇로 나누어 韓國의 位置는 다음과 같다.

<섬을 包含한 境遇의 위치>

極東 : $131^{\circ}52'22''E$ (경북 울릉군 獨島 東端)

極西 : $124^{\circ}11'00''E$ (平北 龍川郡 신도면 마안도 西端)

極南 : $33^{\circ}06'40''N$ (濟州島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南端)

極北 : $43^{\circ}00'39''N$ (咸北 穩城郡 유포면 유포진 北端)

<섬을 제외한 半島만의 위치>

極東 : $130^{\circ}41'22''E$ (咸北 慶興郡 노서면 東端)

極西 : $124^{\circ}18'35''E$ (平北 龍川郡 龍川面 西端)

極南 : $34^{\circ}17'16''N$ (全南 海南郡 송지면 南端)

極北 : $43^{\circ}00'39''N$ (咸北 穩城郡 유포면 유포진)

우리나라의 東西兩端間의 經度差는 大略 7度 ($124^{\circ}E \sim 131^{\circ}E$)이며 中央經線은 大略 $127^{\circ}30'E$ 로, 한때는 咸興 元山 金化, 大田, 順天등 附近을 通過하는 $127^{\circ}30'E$ 으로 子午線을 삼아 標準時를 定한 적도 있다.

經度差가 적어 時差現象을 주지않기 때문에 經度는 問題되지 않으나 緯度는 略 10度 ($33^{\circ}N \sim 43^{\circ}N$)로 差가 나며 이는 氣候上으

로 相当한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多少의 南北現象을 일으킨다. 特히 南北이 分断되고 生活圏이 獨立됨에 따라 南北流通을 통한 生活手段의 平準化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南北間에는 「純粹한 地理的 影響」이 生活領域에 影響을 加重시켜 南北現象을 더욱 助長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數理的位置의 差度를 考察할 必要가 있다.

<南北韓의 數理的位置>

	極 北	極 南	平均中間經度
南 韓	約 38° N	約 34° N	36°
北 韓	約 43° N	約 38° N	40°

<※ 南韓의 極北은 休戰線 東端이지만 面積과 人口 및 利用度를 考慮하여 大略 38°線을 잡은 것이며 이는 또 北韓의 極南이 된다. 南韓의 極南은 濟州島 南端까지이나 中間에 바다가 끼어 氣候上의 空白이 加減되기 때문에 이를 平均化하기 위하여 大陸과 濟州島 中間線 (34° N)을 想定했다. 平均中間經度는 人口와 土地利用 및 經度を 고려하여 잡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南北間에 平均 4°의 緯度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程度라면 韓國이 섬이거나 內陸國이었을 境遇 氣候에 偏差를 안주었겠지만 南北으로 긴 半島 (1,300 km)임으로 大陸性 및 海洋性 影響差가 있어서 氣候의 重要한 要素인 氣溫과 降雨量 (또는

降水量이라고도 함)은 土質과 더불어 植生(樹草), 穀食, 人間活動과 營養 및 健康에까지 影響을 미친다. 이들 諸般聯關要素들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2. 南北의 生活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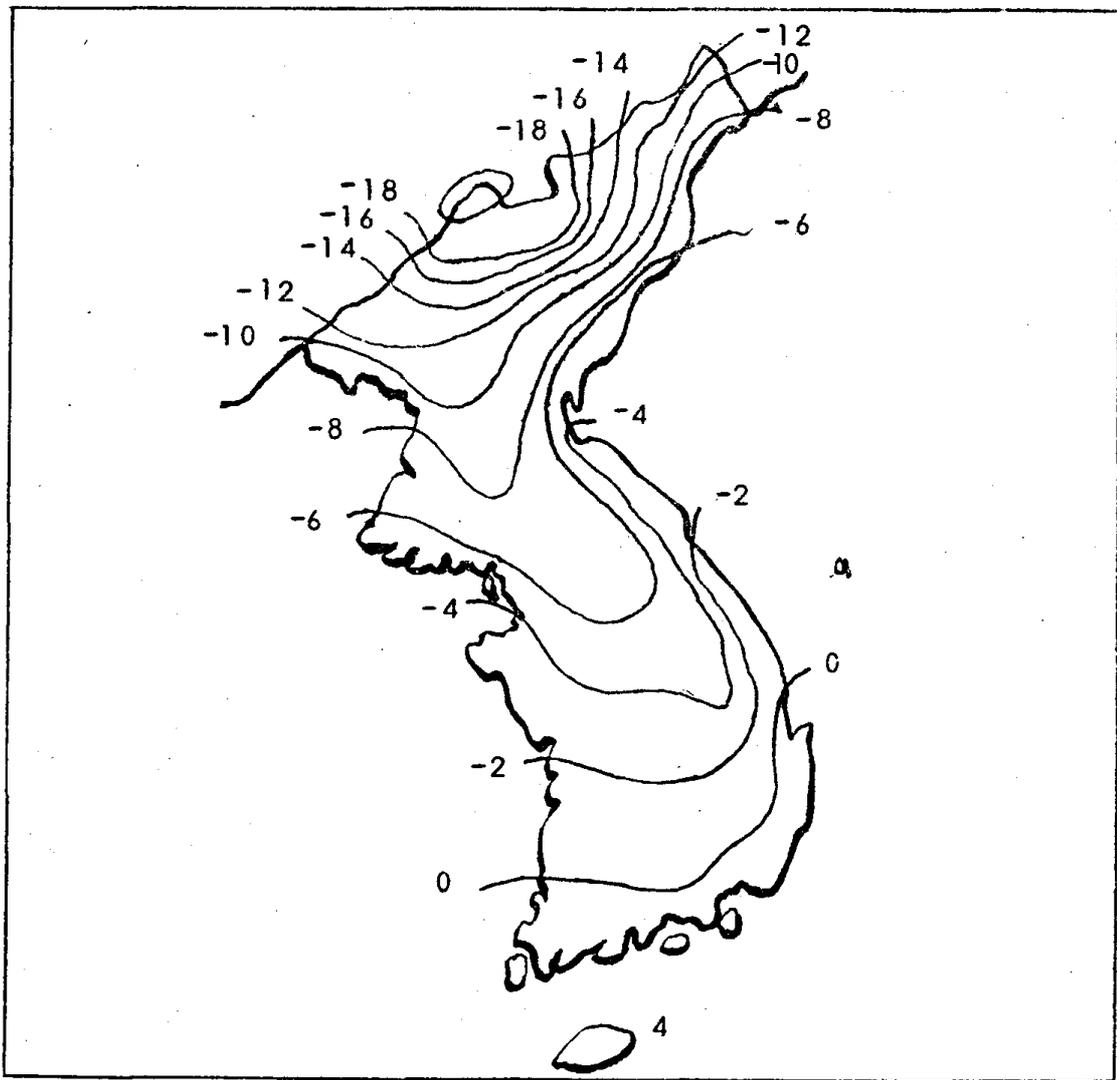
(1) 氣溫과 人間活動

여름철 氣溫은 南東海洋風의 影響으로 南北韓間에 大差없이 거의 熱帶와 같은 程度로 30°C 이상의 날씨가 平均 10~5日間 繼續되며 南北差는 最大 9°C 이므로 平均差는 4°C 로 큰 것이 아니어서 多少의 差異가 있다해도 生活樣式에 커다란 差異를 造成하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의 氣溫差는 相當히 크다. 南北平均하여 가장 추운 1月 平均氣溫을 보면 <圖表Ⅲ-1>과 같다. <圖表Ⅲ-1>에서 보다싶이 等溫線이 西北大陸風의 影響으로 屈曲이 甚하여 南·北韓의 氣溫平均差를 求하기가 어렵지만 大体로 南韓은 $4^{\circ}\text{C} \sim -6^{\circ}\text{C}$ 에 걸쳐있어서 -2°C 를 中間值로 잡는다면 北韓은 $-6^{\circ}\text{C} \sim -20^{\circ}\text{C}$ 에 걸쳐있어서 -12°C 를 平均值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1月平均 南北韓氣溫差는 10°C 에 達한다. 特히 1月最底氣溫은 南海岸 $-2^{\circ}\text{C} \sim -4^{\circ}\text{C}$, 中部地方 $-8^{\circ}\text{C} \sim -12^{\circ}\text{C}$ 以下 程度인데 蓋馬高原內陸은 $-20^{\circ}\text{C} \sim -30^{\circ}\text{C}$ 以下로 내려가며 中江鎭을 中心으로 長津, 豊山, 三水, 厚昌, 慈城에 걸친 一帶는 最底氣溫이 -40°C 까지 내려간 일이 있어 韓國에 있어 最寒地帶를 이루고 있다. 겨울期間은 最北部 約6個月, 北部沿岸 約5個月, 中部 約4個月, 南部 約3

個月이 된다. 1) 換言하면 最寒地帶(6個月)와 最暖地帶(3個月)를 除外하고 볼때 平均하여 北韓은 5個月이 南韓은 4個月이 겨울이어서 南北間에는 平均 1個月以上の 겨울期間差異가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은 平均 7個月, 南韓住民은 平均 8個月의 活動適期를 갖

<圖表Ⅲ-1>

1 月 平均 氣 溫



는 셈이며 1個月 差異라 하더라도 寒冷(南)과 酷寒(北)의 차이가 있어서 北韓住民은 훨씬 고통이 크다. 겨울이라고 해서 人間活動이 停止되는 것은 아니지만 衣服과 住民生活이 그만큼 不便하게 된다. 따라서 自古로 百姓들이 살기좋은 南쪽으로 移住가 많아, 南韓의 人口가 恒常 더 많았다. 參考로 解放前 南北韓人口와 人口密度를 <圖表Ⅲ - 2>에 밝혀둔다.

<圖表Ⅲ - 2> 解放前(1942年末) 南北韓人口

	韓 人	%	외 국 인 (주로 日人)	%	計	%	人口密度
全 國	25,525,409	100	835,992	100	26,361,401	100	119
南 韓	16,139,130	62.2	495,589	59.3	16,634,719	63.1	179
北 韓	9,386,279	37.8	340,403	40.7	9,726,682	36.9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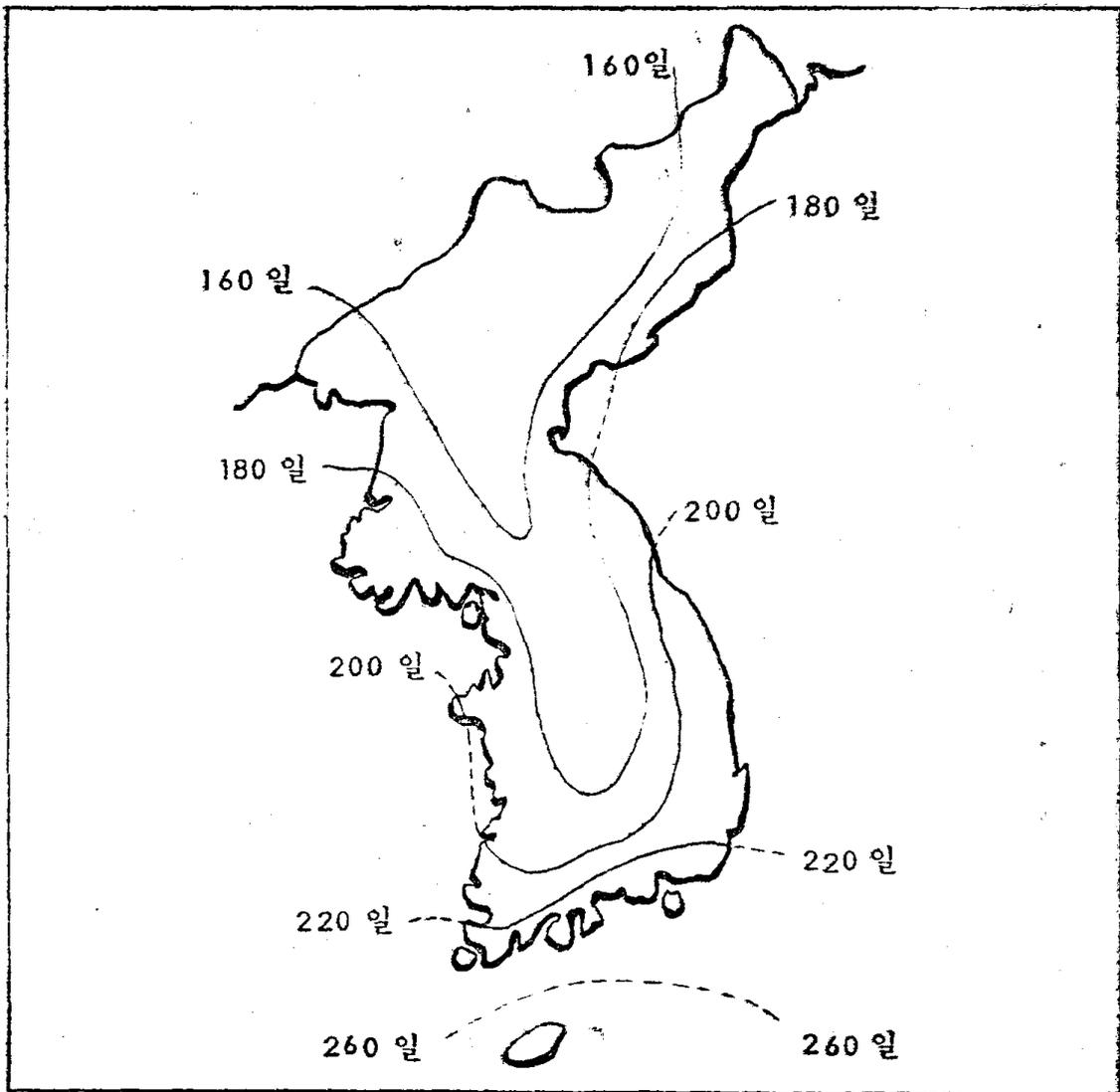
(根拠 : 朝鮮年鑑 , 서울 : 朝鮮通信社 , 1947)

이 같은 人口의 多寡現象이 꼭 移住때문만은 아니고 自然增加率과 南韓에 비해 보다 더 많은 北韓의 人口가 滿洲로 移民하는 등의 理由도 있지만 滿洲移民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人口絶對量에 큰 영향을 못 미치며, 自然增加가 많은 點은 亦是 生活与件의 良好性을 強調하는 것이다. 따라서 食糧差도 있지만 氣溫差 때문에도 더 많은 人口移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南韓住民은 北韓住民보다 氣溫面의 幸福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即 天惠가 그만큼 더 큰 것을 意味한다.

(2) 氣溫, 山野 및 穀食

氣溫의 南北差現象은 農作物의 生育期間에 差異를 보여준다. 南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北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데 <圖表Ⅲ-3>을 參考하면 大略 南韓이 180日以上 260日以内임에 反하여 北韓은 160日乃至 180日以内에 不過하다.

<圖表Ⅲ-3> 作物 生育 期間



이같은 氣溫條件은 우리나라의 雜穀과 果일의 生産地를 制約한다. 보리는 滅惡山脈을 境界로 그 以南에서 主로 生産되며 主産地는 嶺南地方이다. 쌀보리는 車嶺山脈을 境界로 그 以南에서 主로 生産되며 主産地는 湖南地方이다. 고구마도 南部地方에 偏在하는 作物이다. 과일 가운데 배도 中部以南이 主産地이다. 귤은 남해안과 제주도

<圖表Ⅲ-4> 耕作형태



에서만 成長한다. 감도 滅惡山脈을 分水嶺으로 하여 以南에서만 主로 生産되며 嶺南一帶와 湖南地方에서 多量生産된다. 이들 雜穀이나 果일은 北韓에서는 稀貴 乃至 全無 品目들이다. 그밖에 밀, 호밀 (Rye),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감자, 사과, 복숭아, 포도, 밤등은 南北에 ปลูก되고 栽培된다. 南韓에서 稀貴한 것은 北韓의 蓋馬高原에서 主로 栽培되고 있는 귀리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韓半島에서의 作物中에서 量的으로 더 豊富하고 質的으로 더 優秀하고 種類面에서 더욱 多樣한 營養

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量的으로 더 많고 種類에서 더 多樣的인 理由는 <圖表Ⅲ-4>에서도 알 수 있다. 換言하면 南韓에서는 耕作期間이 길고 耕作回數도 北韓보다 많기 때문에 多樣的인 穀物과 과일을 同時에 즐길 수 있는 것이다. 雜穀類以外에 우리 民族의 主食인 쌀의 生産은 南北間에 더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쌀의 生産은 年 1,000 mm以上の 降雨量과 150日以上の 無霜日數 등의 條件下에서는 어떤 논(畓)에서나 可能하기 때문에 米穀生産을 위한 氣候要素는 南北이 大同小異하다. 그대신 平野와 山地의 分布에 依하게 된다. 平野와 山地의 分布를 볼때 大体로 平北 義州로부터 慶北 浦項을 잇는 直線의 東北方은 山地가 많고 西南方은 平野가 많다. 따라서 義浦線, 東北方은 田地가 많아 雜穀生産이 爲主이고 西南方은 畓地가 많다. 따라서 米作面積과 生産量은 南韓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表Ⅲ-5>에서 보다 싶이 年産 3萬噸以上인 郡의 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

<表Ⅲ - 5>

年産 3 萬噸 이상인 郡數比較

南 韓		北 韓	
平野名	郡 名	平野名	郡 名
京畿平野	金浦, 坡州, 江華	咸南平野	咸州, 定平, 永興, 高原
漢江盆地	利川, 麗州	東 北 海岸平野	北青, 吉州
安城平野	華城, 平沢, 安城	龍川平野	龍川
礼唐平野	礼山, 唐津, 瑞山, 牙山	博川平野	定州, 博川
清州盆地	清州	安州平野	安州, 平原
湖南平野	論山, 扶餘, 舒川, 公州 金堤, 益山, 完州 고창, 沃溝, 扶安, 井邑	平南西部	龍岡, 江西
		載寧平野	載寧, 信川, 安岳
		延白平野	延白, 응진
南原盆地	南原		
全南平野	羅州, 務安		
海岸地域	宝城, 海南		
嶺南平野	金海, 昌原, 密陽, 陝川		
蔚山平野	蔚山		
嶺南盆地	尚州, 義城, 安東		
大邱 "	金陵, 達城, 永川, 善山, 慶山		
迎日平野	月城, 迎日		

이같은山野의 分布는 曠의 築造나 農地開墾을 通해 多少의 變化가 있으나 南野北山 現象을 크게 打開할 수는 없다. 76년 現在 南北의 田畝分布는 <表Ⅲ-6>과 같다. 3)

<表Ⅲ-6>

南北耕地面積比較 ('76 現在)

(單位：1,000 ha)

	南 韓	北 韓
총 면 적	2,238	2,037
畝	1,146	625
田	1,092	1,412

이처럼 氣候와 地面때문에 南北의 糧穀의 種類와 質과 量의 差異가 나타나는데 1976年 現在 南北韓間에 主食인 쌀과 其他 雜穀의 生産量은 <表Ⅲ-7>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表Ⅲ-7>

南北糧穀生産量 ('76 現在)

(單位：1,000 t)

	總 計	쌀	麥 類	豆 類	雜 穀	薯 類	옥수수
南 韓	8,206	5,215.0	1,848.2	354.0	119.0	670.0	84.0
北 韓	4,543	1,885.0	35.0	135.2	42.5	208.0	2,151.2

<表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韓은 옥수수를 제외한 모든 穀類에서 훨씬 많은 生産量을 갖고 있다. 또 南韓의 主食이 쌀과 麥類인데 反하여 北韓은 옥수수와 쌀의 順이다. 結局 北韓은

첫째, 粗雜한 食生活을 하게 되고
 둘째, 果일의 質的 種類別 過少로 비타민 攝取가 劣勢이며
 셋째, 田地耕作이나 火田農法 때문에 더 많은 勞役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副食

氣候와 地理條件의 南北隔差는 몇가지 副食에서도 差異가 생
 기게 되었다. 牧畜 또는 家畜業과 水産業을 中心으로 考察하면

첫째, 北韓은 食生活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家畜生産에 努力하고
 있다. 이는 山이나 丘陵地가 많기 때문에 放牧 또는 草食을 시
 키기에 便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表Ⅲ-8>에서 보는 바와같
 이 北韓이 南韓에 比하여 優勢하다. 5)

<表Ⅲ-8> 南北家畜比較 (1972)

(單位 : 1,000頭)

	소	돼지	닭	山 羊	토끼
南 韓	1,369.5	1,247.6	24,537.4	152.2	421.2
北 韓	721.1	1,475.9	11,136.0	190.5	2,039.2

韓牛의 境遇는 傳統的으로 山地 丘陵草原이 豊富한 太白山地域,
 漢拏山地域, 北韓의 咸南, 咸北, 平北의 山丘地帶의 農村에서 比較的
 盛行되고 있으나 特殊한 分布地域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대신
 山羊은 放牧하고 있기 때문에 山岳, 丘陵地帶에서만 盛行되는 것이
 어서 北韓의 生育條件이 더 낫다. 돼지, 닭, 토끼, 따위는 完全한

家畜이어서 家内에서 기르기 때문에 소와 마찬가지로 分布現象이 없으나 北韓에서는 食糧生産의 不足을 메꾸고 지방질 섭취를 통한 耐寒力을 높이기 위하여 많이 기른다. 따라서 돼지, 山羊, 토끼는 絶對數値에서 南韓보다 많고 소나 닭도 人口比例로 따진다면 南韓에 비해 優勢하다.

둘째, 北韓은 水産業에서 南韓보다 不利한 位置에 있으나 生産量提高에 努力함으로써 人口比例上 거의 均勢 乃至 若干 優勢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豆滿江下流로 부터 해금강 앞바다까지 걸친 東海의 沿岸漁民들이 出漁하기 때문이다.

元來 東海는 봄이 되면 水溫이 上昇하여 東韓暖流가 北上하여 공치, 오징어, 방어등 暖水性魚族이 北淤하고 늦가을에는 南쪽 越冬場으로 내려간다. 寒水性魚族도 명태, 청어, 대구등이 寒流를 타고 北淤 또는 南淤한다. 따라서 産卵期가 春秋二回여서 이때를 맞아 大量 漁獲이 可能하다. 東海岸線의 길이로 보아 北韓이 若干 優勢하며 寒水性魚族인 명태 청어 대구 미역등 漁獲은 北韓쪽에 더 많다. 南海에서는 김, 굴, 새우등과 삼치, 정광어, 도미, 조기, 넙치, 송어, 문어, 오징어등이 많이 잡히는데 이것은 南韓만의 所有이다. 西海에서는 조기, 갈치, 민어, 고등어, 김, 굴, 새우등이 잡히는데 北韓海區(장산곶以北)은 冬季에는 濟州海流의 勢力이 弱해지고 寒冷한 北西季節風의 영향으로 水溫이 낮아져서 暖水性魚族들이 越冬場으로 南下하기 때문에 12月~3月 間은 休漁期가 됨에 따라 西海에서의 南北漁業條件은 南韓의 優勢가 된다. 東海에서의 若干 劣勢도 南·西海에서

充分히 圧到하고도 남음이 있어 天然与件上으로는 南韓이 優勢하며 努力如何에 따라 北韓의 圧到는 어렵지 않다. 따라서 北韓의 水産実績은 그 絶对量에 있어서 南韓에 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첫째, 漁獲量提高를 強制的으로 다그치고 둘째, 住民 自身の 需要, 세째, 魚獲品目이 單純한 反面 北韓近海에 고래, 대구 등 重量있는 魚族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重量提高가 容易하며 人口比例上의 水産總量은 南韓보다 많음도 <表Ⅲ-9>에서 보아 알 수 있다. 6)

<表Ⅲ-9>

南北韓水産実績比較 (1976年)

(单位: t)

	總 量	水 産 物	물 고 기	海 藻 類	其 他
南 韓	4,494,871	2,406,896	1,614,032	287,457	186,486
北 韓	3,113,573	1,397,327	999,088	318,919	398,239

結局 北韓은 農作物에서 南韓에 뒤진 대신 畜産과 水産物에서 若干 優勢를 보였다. 따라서 南韓住民이 합수탄소와 비타민에서 優勢를 보이고 다른 영양에서도 상당수준의 均衡을 維持하고 있음에 反하여 北韓住民은 脂肪質과 蛋白質에서 優勢를 보이고 다른 영양에서는 결핍현상을 보이고 있다.

(4) 住居와 服裝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社会環境이 不安定하고 또 人口移動도 잦아 貧困한 生活속에서 家屋構造의 改良에 留意할 餘裕가 적고 더욱이 李朝初에는 階級에 따라 民家規模에 嚴格한 制限이 있었던

까닭으로 地方의 風土性이 充分히 나타나 있지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姜錫午教授는 말했다. 7) 勿論 이와같은 現象은 住宅改良이나 現代的 아파트 및 聯立住宅이 나오기 以前의 일이다. 그러나 兪相 農村에서는 勿論이고 都市에서도 在來式 家屋이 더 많다. 이들 家屋構造는 大概 온돌방, 마루방, 土間, 三種의 形態를 갖추는데 온돌은 추운 겨울에 少量의 燃料로 保温하기 위한 것이고 마루房은 夏節의 더위에 對備하는 것이며 土間은 부엌이나 家內作業場으로 마련된 것이다. 家屋마다 具備要素는 같지만 形態나 質은 氣候에 따라 若干씩 달라진다. 따라서 關北型, 關西型, 中部型, 濟州型등으로 달라진다. <圖表Ⅲ-10>에서 보는 바와같이 各種型들은 狼林山脈(關北~關西), 滅惡山脈(關西·關北~中部) 車嶺山脈(中部~南部)등을 境界로 나누어진다. 各型마다 氣候와 材料때문에 形과 質에 差異가 나는데 가령 지붕, 벽, 울타리(또는 담)가 다른 것은 山間, 平野, 多雨地, 少雨地등에 따른 것으로써 全國的인 現象이어서 特別히 注意할 만한 價值가 적지만 家屋構造는 相當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構造上의 差異點을 大略 간추려 보면

① 中部, 關西, 關北으로 올라갈 수록 벽이 두꺼워지면서 房의 密閉度가 甚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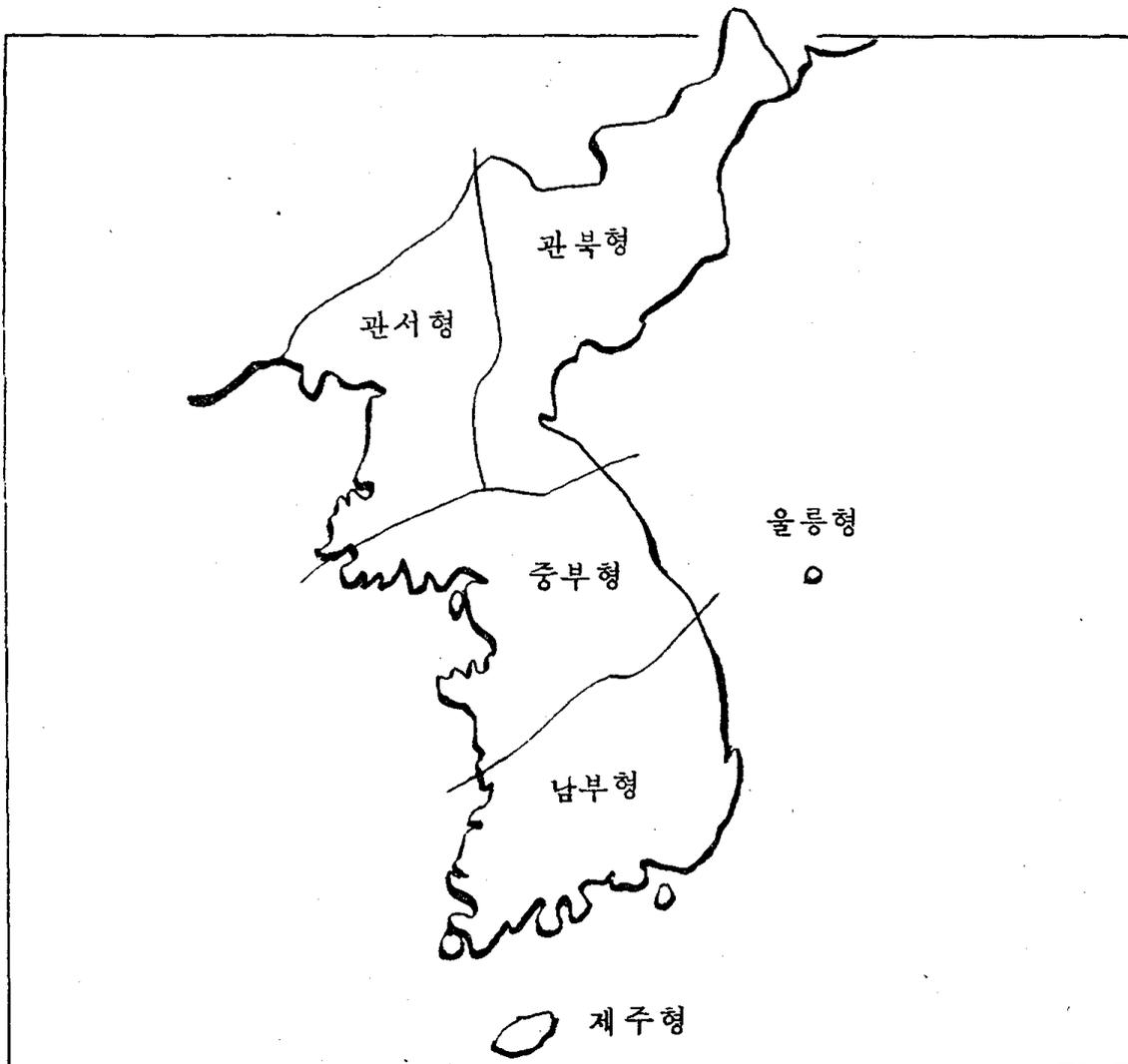
② 中部以北으로 갈수록 뒷마루 없는 집이 많다. 마루房(또는 大廳마루)도 마찬가지이다.

③ 關西로 부터 北東上 할수록 온돌房 겸 부엌으로 된 單一의 온돌방에서 취사와 취침이 兼行되어 家族共同生活性이 높다.

④ 關西型으로부터 關北으로 갈 수록 田字型으로 房이 密集
 傾向이 있으며 或 母채 (母屋)와 前棟 (前棟)가 別個로 있는 경
 우에도 間격이 地극히 좁아져서 마당 (앞뜰)이 좁아진다. 8) 이
 같은 現象은 南쪽으로 내려갈 수록 反對現象으로 나타난다. 北으
 로 올라갈 수록 住居環境부터 폐쇄적이고 家族中心的이고 自然과

<圖表Ⅲ - 10 >

地域別家屋構造型



隔離的인 傾向이 強해짐을 뜻하며 南으로 갈수록 開放的이고 社會的이고 自然과 調和的인 傾向임을 뜻한다. 비록 現代的인 住居環境이 凶謀된다 하더라도 本質的인 住居環境에서의 差異는 免할 수 없는 것이다.

服裝에서도 差異가 있다. 北으로 갈수록 防寒을 위하여 두꺼운 솜옷을 입게되며 部分的으로는 滿州式 마고자(馬封子)型 옷을 입고 털옷도 많아진다. 家屋構造와 마찬가지로 身體에 對한 쾌適성이 強하여 自然과 隔離度가 높아짐으로서 自然 또는 人間에의 情緒가 欠乏된다. 南으로 갈수록 反對임은 勿論이다.

3. 南北韓住民의 知德體

氣候와 食品 및 共同生活環境이 人間의 知와 德과 體에 影響을 준다. 上述한 南北差를 土台로 南北韓의 知德體를 比較해 본다.

(1) 知

知는 德, 體와 三要素가 되어 人間을 智慧롭게 만드는 것으로 動物과 區別짓는 尺度이다.

知(또는 知性)은 여러 生活條件 가운데 氣候의 影響을 가장 크게 받는다. 시베리아 寒帶地方에 가까울 수록 野蠻人이 많고 赤道地方에 가까울수록 未開人이 많다. 너무 추운 지방이나 너무 더운 地方은 人間의 知能形成에 障礙가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現象은 範圍를 좁히더라도 差異만 작아질 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中國에서는 예로부터 北兇南狡(性格이 北으로 갈수록 兇惡하고 南으로 갈수록 狡猾하다는 뜻)라는 말이 通用되고 있다. 北으로 갈수록 知的 水準이 낮아서 愚惡스러운 面이 強하고 南으로 갈수록 知的 水準이 높아 차라리 狡猾스러운 面이 強해지는 中國의 現象은 우리도 多少 느꼈던 일이다. 蒙古族이나 女真族이 來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사나운 늑대에 比喩하고 倭軍이 쳐들어 올 때는 여우나 뱀에 比喩했다. 南敵은 여우, 北敵은 오랑캐(兀良哈), 더욱 北쪽인 蘇聯은 곰으로 稱하는 경우가 많다. 韓半島 좁은 땅에서도 多少의 差異가 있다. 高句麗가 勇猛으로 象徴되고 新羅가 智慧로 象徴됨은 偶然한 일이 아니었다. 이와같은 差異는 비록 大端한 것이 아니지만 相對的 作用때문에 南北 兩者의 對坐에서 累累히 나타난다. 金日成이 武力統一을 試圖했던 忘想이나 現代版 世襲 君主制를 復活시킨 政治行態, 南北對話時 유난히 으시대는 北側代表들의 蠻勇, 이런 것 들은 모두 그러할 만한 自然의 摂理가 크게 影響을 준 것이다.

統一된 狀態라면 하나의 큰 共同生活圈이 됨에 따라 거의 平準化 되지만 理在는 生活圈이 다름으로 差異를 막을 길이 없다. 따라서 北韓住民은 ickick함이 長点이나 蠻勇이 단점이 되고 南韓住民은 智慧로움이 長点이나 狡猾함이 단점이 된다. 그러나 韓半島에서는 勇猛이 智慧에 지는 역사였다. 高句麗의 勇猛은 新羅의 智慧에, 女真的 勇猛은 朝鮮의 智慧에 당해내지 못했으며 北魏의 勇猛은 必然코 韓國의 智慧에 敗北할 것이다.

其他 知와 關聯된 여러가지 性格項目도 分析하면 비슷한 相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德

德은 知, 體와 더불어 人間을 人間답게 만드는 品性이다. 人格과 關聯된 德 또는 德性은 人間の 共同生活에서 重要な 役割을 한다.

德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集團生活環境이다. 德性의 特徵은 人間關係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에 根源自体도 당연히 人間과의 交際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傳統的으로 俗談形式으로 전해 오는 말에 獨子の 性格 보다는 多兄弟의 性格이 圓滿하고 無男獨女보다는 딸부자宅 딸의 性格이 普遍的으로 더 圓滿하다. 이 말은 小家族 家庭의 成員보다는 大家族 家庭의 成員이 對人關係에서 平均的으로 더 圓滿함을 뜻한다.

<家和萬事成>이니 <修身齊家 治國 平天下>라 했듯이 人間の 德性이 基本的으로 家庭에서 形成됨은 否認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充分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失敗를 補充하기 위하여 學校教育의 價值가 重視되며 그래도 不足할때 社會 到處에서 修養 乃至 學習할 機會에 부닥치는 것이다. 家庭, 學校, 社會, 三者야말로 人格形成에 가장 큰 影響을 주는데 이 모두가 人間關係를 基本으로 함이 共通點이다.

나라도 本質的으로 家庭의 擴大版으로 보는 것이 東洋的 思考方式이며 傳統이다. 酋長 一家에서 部族國家로, 部族聯盟國家를 거쳐

民族國家 또는 民族聯盟國家로 發展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東西洋이 人間끼리 調和를 重視함은 마찬가지 이나 東洋은 比較的 上下와 主從觀念이 強하고 西洋은 平等과 對立 觀念이 強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東·西 어느 쪽에나 多少의 差異는 있겠지만 德性을 重視한다.

나라가 하나의 家族社會의 擴大版에 類似하기에 나라별로 大體的 特徵이 나타난다. 例컨데 人口가 가장 많은 中國의 境遇는 大家族國家인 셈이다. 中國人이라고 하면 大概 道德人으로 指稱되는 경우가 많다. 印度人 亦是 貧寒이 元망스러울 뿐 破廉恥漢이 많다고 알려지지는 않았다. 美國도 人口密度는 比較적 낮을 지언정 人口가 많다. 美國人이 一般的으로 兇惡스럽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現在 南北韓은 大家族과 小家族의 差異가 있다. 北韓의 人口는 南韓의 切半도 못된다. 勿論 共產政權의 영향이 있지만 小家族의 習性에서 또 地勢로 因하여 群集生活보다는 分布 또는 散在된 生活을 하기 때문에 獨善的인 面이 보이며 남을 理解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讓步도 하는 그러한 態度가 比較的 적다. 南北對話問題에서의 獨善性이야 政權 自體의 問題點이기도 한 것이지만 그들의 外交官들이 國際舞台에서 左衝右突의이고 間或 不法的인 行爲를 娑行함은 南韓과 對照的 性格을 보여 준다. 南韓과 比較하여 보는데 限 그들의 國際外交行態는 끝내 劣勢를 免치 못할 것이다.

南韓에서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듯이

比較的 混亂이나 對立이 잦았지만 相互 理解하고 協同하고 寬容하는 幅이 北韓에 比해 優秀하다. 이는 如何한 境遇에도 南韓의 政治實態나 制度 및 체제가 北韓보다 民主的임이 雄辯으로 說明해주고 있다. 理解, 協調, 寬容의 優勢는 國際外交에서도 北韓에 比해 훨씬 妥協的이고 圓滿하게 實行되고 있음은 當然한 歸結이라 하겠다.

(3) 體

體格, 體質, 體能의 屬性을 갖는 體 또는 健康은 知性과 마찬가지로 人間의 三要素이며 生命을 간직해 주는 倉庫이다.

體는 生活條件 가운데 食品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雜穀과 蛋白質을 많이 먹는 北方으로 갈 수록 體格이 크고 米穀을 많이 먹는 赤道地帶로 갈 수록 體格이 작아진다. 蘇聯人和 越南人の 體格에 差異가 있고 北中國人和 南中國人の 體格에도 差異가 있다. 北韓住民이 南韓보다는 僅少한 差異나마 體格이 平均的으로 더 크다. 그러나 體質이나 體能面에서는 南韓을 따르지 못한다. 南韓은 含水炭素와 비타민 섭취에서 優勢하고 全體的으로 營養상태가 고르기 때문에 體力과 體質面에서 北韓을 壓倒한다. 北韓인들이 大體로 營養失調 特히 含水炭素의 不足으로 깡마르고 비타민의 不足으로 피부에 윤기가 적는데 反하여 韓國人들은 더 살찌고 피부가 좋다. 이같은 體質, 體能의 差異가 國際大會에서 나타난다. 제 8회 아시아경기대회 (방콕 1978.12)에서 韓國은 메달 79개를 얻어 3位를 했고 北韓은 43개를 얻어 4

位를 했다. 體能人 養成面에서는 北韓이 더 많은 政策的 配慮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우리에게 비해 劣勢에 있다. 體力만이 国力은 아니지만 <體力이 国力이다>고 表現될 程度로 重要한데 우리의 優勢이다. 特히 北韓側은 少數種目的 個人 競技分野에서 겨우 體面을 維持했으나 南韓은 各種 種目的 團體競技에서 北韓보다 優勢하였으므로 體能의 多樣度와 普及度(底辺層)에서 南韓이 強勢임을 알 수 있다.

南北의 數理的 位置는 南側에 知德體의 優越이라는 크나큰 惠折을 준 것이다.

IV. 地理的位置와 戰爭

1. 南北의 地理的位置概觀

우리나라는 이태리, 그리스, 덴마크와 같은 半島國家이다. 北部만 大陸과 接하고 東·西·南 三面은 바다에 쌓여있다. 總面積은 221,000 km^2 로서 半島部가 215,000 km^2 인 絶對多數의 面積을 차지하고 島嶼部는 6,000 km^2 에 不過하다. 休戰線을 境界로 國土가 分斷됨에 따라 北韓은 122,357 km^2 , 南韓은 98,431 km^2 로 北韓이 約 2萬 km^2 가 더 넓다. 大體的으로 北韓에는 山이나 高原이 많고 南韓에는 江과 平野가 많은데 全體的으로 볼 때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山脈과 高原이 全國土의 75%를 차지한다. 國土의 平均高度는 海拔 482 m 로 100 m 未滿地帶가 23.8%, 100~500 m 地帶가 40.9%, 500~1,000 m 高地가 약 20%, 1,000~1,500 m 가 10.8%, 1,500~2,000 m 高地가 4.0%, 그리고 2,000 m 이상의 高地가 0.4%이므로 보아 底山性山地 및 丘陵性山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大體로 39°N線以南은 山地가 大端히 낮고 以北은 높다. 956 m 의 咸南平均高度와 100 m 의 忠南平均高度는 對照的이다. 特히 咸北의 30%와 咸南의 40%가 1,000 m 以上の 高地이다. 平北과 江原은 各各 약 40%가 500 m 以上の 山地로 되어있다.

山脈으로는 北으로부터 白豆山脈(摩天嶺山脈), 咸鏡山脈(咸南部分

은 赴戰嶺山脈이라고도 함), 狼林山脈, 江南山脈, 秋榆嶺山脈, 妙香山脈, 언진山脈, 滅惡山脈, 阿虎飛嶺山脈 그리고 蓋馬高原이 北韓에 있고 太白山脈, 小白山脈, 広州山脈, 車嶺山脈 및 蘆嶺山脈이 南韓에 있는데 太白山脈과 小白山脈을 除外하면 아주 얇은 山脈들이다.

山脈에는 秋哥嶺, 鉄嶺, 陳富嶺(以上太白), 竹嶺, 烏嶺, 秋風嶺, 六十嶺(以上小白), 黃草嶺, 赴戰嶺(以上咸鏡) 및 慈悲嶺(滅惡山脈) 등 有名한 高개(재)가 있어 近世까지의 交通路가 되었다.

둘째, 河川과 平野는 주로 西南海岸에 많다. 그러나 国土가 좁고 山岳이 많기 때문에 긴 강이 없다. 大体로 咸鏡山脈 狼林山脈, 太白山脈 등이 東海側에 치우쳐 있어서 東海로 흐르는 江은 짧고 急流이며 西南으로 흐르는 江은 길고 緩漫하다. 流路가 400 km以上인 江은 鴨綠江, 豆滿江, 大同江, 漢江, 錦江, 洛東江 등 六個인데 <表IV-1>에서 보듯이 길이에 比하여 流域面積이 넓다. 1)

<表IV - 1.>

主要河川과 流域面積

南 韓				北 韓			
江 名	流域面積 (km^2)	길 이 (km)	可 航 路 (km^2)	江 名	流域面積 (km^2)	길 이 (km)	可 航 路 (km^2)
한 강	26,279	514	330	압록강	31,739	790	698
낙동강	23,860	525	344	두만강	10,513	521	85
금 강	9,886	401	130	대동강	16,673	438	260
임진강	8,118	254	124	청천강	5,831	199	152
섬진강	4,897	212	39	예성강	4,048	174	65
영산강	2,798	116	48	재령강	3,671	129	37
其他支流와 平野가 많음				용흥강	3,397	135	64
				섬청강	2,338	99	-
				남대천 (단천)	2,405	151	-
				남대천 (북천)	2,056	57	-

江以外에도 天然湖나 人工貯水池로 赴戰湖, 狼林湖, 水豊湖, 長津湖, 銀波湖, 장수저수지등이 北韓에 있고 파로호, 昭陽湖, 淸平湖, 安東湖 葛潭池, 礼堂池, 長城池등이 있어 江의 效率性を 높여주면서 어떤것은 戰略的境界線 役割도 하고 있다.

세째, 海岸線이 길고 섬이 많다. 海岸線은 天然要塞임과 同時에 公海로 뻗어 나가는 出口로써 重要하다. 海岸線의 總延長은

17,283 km인데 陸地部分이 8,691 km 島嶼部分이 8,592 km에 達한다. 沿岸의 섬(79.2 內務部 總計)은 3,962個로 3,444개가 南韓에 있고 北韓에는 518개가 있다. 特히 全南에만 2,106개가 있어 過半數를 차지한다. 海岸線 길이는 西海岸 4,719 km, 南海岸 2,246 km, 東海岸 1,727 km이며 海岸線이 길기 때문에 南韓에만도 1,350여개의 大小의 港口가 있다.

東海岸은 急傾斜여서 곳곳에 岩石海岸이 많다. 그 가운데 興南-城津間과 江陵-浦港間 海岸이 현저하다. 그러나 興南-元山間에는 沙濱海岸이 많고 江陵-元山間과 定平-北靑間에는 礁湖(Lagoon)가 나란히 發達되고 또 곳곳에 沙洲나 陸繫島가 있다.

西海岸과 南海岸은 干満의 差가 심하다. 東海岸 0.3 m, 釜山 1.2 m, 麗水 2.5 m, 木浦 3.5 m 順으로 仁川(8 m 以上)에 이르러 가장 甚하며 다시 北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潮水때문에 장산곶(長山串), 安興梁(泰安半島) 관장목(冠丈項), 손돌목(孫玆項: 江華島), 울돌목(鳴洋海峽) 등에서는 海上交通이 險難해진다.

이러한 諸般 主要地勢는 半島上의 歷代 政治秩序에 큰 影響을 미치었다.

2. 南進과 北進

1) 傳統的要塞

우리나라의 國境線이 鴨綠江, 白頭山, 豆滿江으로 決定된 것은 아주 옛날이 아니고 지금부터 約 530年 前인 朝鮮朝 世宗大王때인 1440年代의 일이다. 그전에는 版圖가 달랐었다. 部族時代, 部族聯盟時代,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를 거치면서 國境線은 적어도 두가지 側面에서 變하였는데 첫째는, 小分立時代に 오히려 더 넓은 無主地가 國境인 셈이어서 애매하고 느슨했던 것이 점차 가늘고 堅固해진 것이며 둘째는, 大統一과 더불어 國境線은 漸次 길어진 것이다. 그러나 國境線들은 어떤 形態이든간에 天然要塞를 重心으로 定해져 왔던것은 變함없는 特徵이었다. 그렇기에 모건씨는 "제아무리 다른 여러 要因들이 歷史의 進行過程에서 그것(地理的 要因)의 價值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2,000年前에 重要했던 것이 지금도 重要하며 또 對外活動에 関與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地理的 要因)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고 말한 것이다. 天然的인 地勢의 如何가 過去 우리나라의 歷史 即 經驗에서 얼마나 重要했던가 살펴보자.

2) 南進沮止線: 二江 二山 一海

國土가 統一되었을 때는 滿洲나 遼東半島 또는 山東半島에서 來侵한 敵軍이 北敵이었다. 따라서 그때마다 平安道나 咸鏡道住民들과 辺方軍들은 第一線에서 北敵의 沮止에 殊勲을 세웠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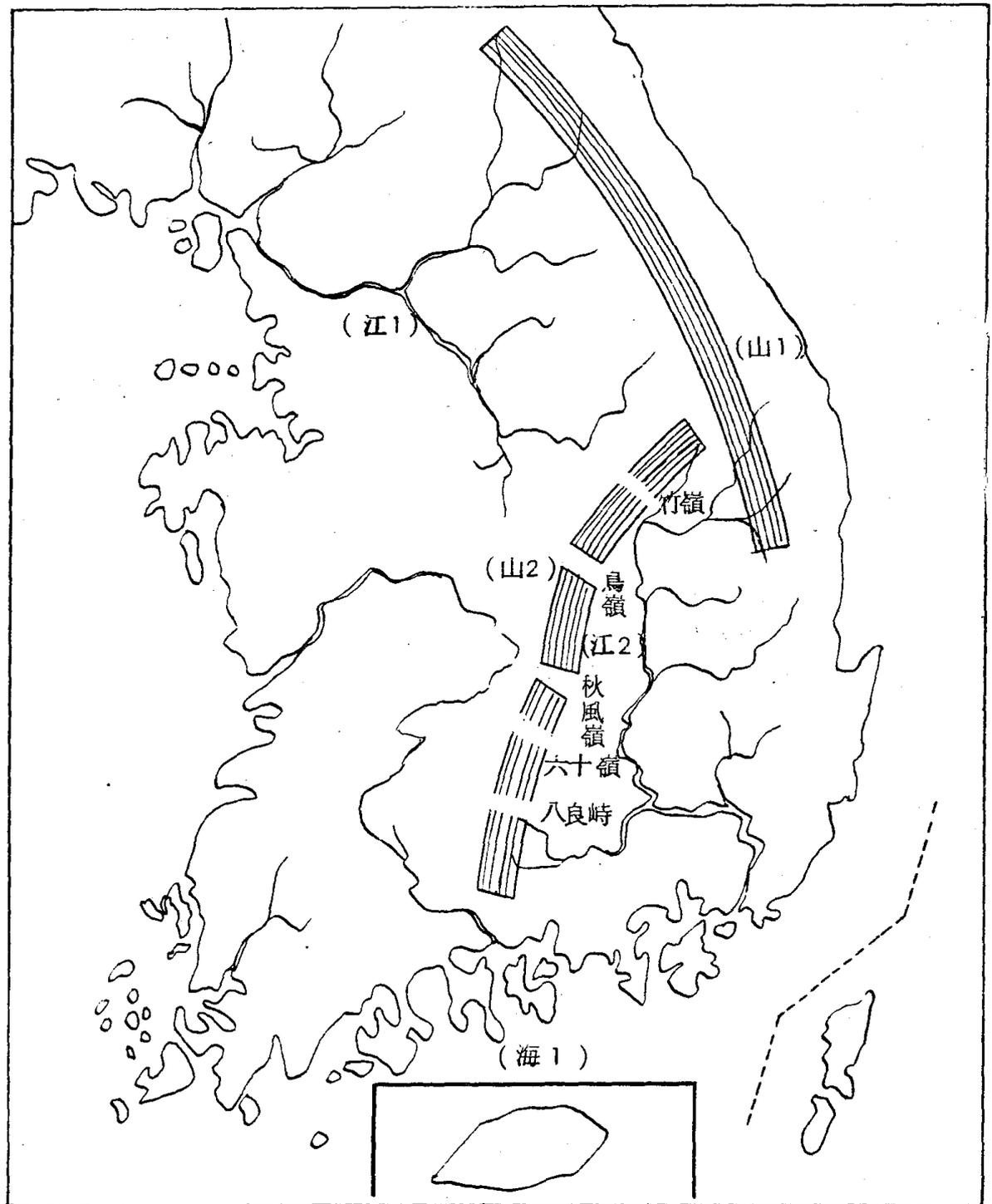
国土가 分断되고 北韓傀儡政權에 依한 南侵을 당하면서부터는 休戰線北方의 共產軍이 北敵이 되었다. 따라서 傳統的으로 나라를 지켜주던 鴨綠江, 淸川江, 大同江, 滅惡山脈 등이 只今은 北敵을 막아주는 防禦線이 아니다.

休戰線以南에서의 北敵沮止線은 臨津江, 漢江, 錦江, 太白山脈, 小白山脈, 洛東江 등 여러개이다. 그러나 그가운데서도 가장 重要한 것은 漢江, 洛東江, 太白山脈, 小白山脈 등 二江二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圖表IV-1>을 參考하기로 한다.

첫째, 漢江은 北敵을 막아주는 가장 強力한 要塞였다. 一次的으로 臨津江의 補助를 받는 利點도 있다. 平南地方과 黃海道까지 先後로 勢力을 뻗혔던 真番郡과 帶方郡 등 漢의 勢力(B.C 108~AD.350경)이 大略 漢江의 北界格인 臨津江 以北에까지 局限되었다. 高句麗가 廣開土王 때(396年) 臨津江流域까지 南進한 뒤 漢江流域까지 再進出(475年:長壽王時)하기까지는 80年이란 긴 歲月이 所要되었다. 百濟가 略 500年間 지키던 漢江流域을 끝내 高句麗에서 빼앗긴 것은 當時의 南韓社會가 新羅, 伽倻와 더불어 三分된 狀態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百濟와 新羅의 聯合軍앞에서는 別수없이 물러나야 했다. (551年) 漢江流域의 歷史는 <表IV-2>와 같다.

<図表IV - 1>

南 韓 地 勢



<表IV - 2 >

漢江流域의 歷史

期 間	時 期	用 途	地 域	政權根拠
493年	B.C 18 ~ 475	百濟首都	広州, 서울	南方政權
76年	475 ~ 551	高句麗要塞		北方政權
350年	551 ~ 901	新羅要塞		南方政權
34年	901 ~ 935	후고구려, 고려初	開城	中部政權
457年	935 ~ 1392	高麗要塞		南方政權
588年~	1392~	朝鮮, 韓國首都	서울	南方政權

여기서 몇가지 特徵을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漢江流域은 南方을 背景으로 하는 政權(南方政權)의 占有地이다. 百濟建國以後 近 2,000年間에 1,900餘年間 南方政權의 首都 또는 要塞로 있었다. 北方政權은 南方이 分立되었을 때 76年間 占有한 것 뿐이다. 後高句麗와 高麗初(新羅降服以前)에 中東部政權이 34年間 占有한바 있으나 이는 南方政權의 一部가 分化된 現象에 不過하다. 따라서 渤海라는 北方政權과는 對峙狀態였다. 둘째, 漢江流域의 占有者가 가장 強盛했으며 大業을 이루었다. 漢江流域의 百濟는 西南方의 社會를 統治하고 近消古王때(346~475)에 이르러서는 禮成江以下를 基址으로 하여 高句麗의 平壤성까지 攻攀한 적이 있다. 當時까지의 新羅는 南方社會의 主役이 못되었다. 한쪽에 치우쳐 靜中動의 姿勢로 침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羅·濟聯合으로 新羅가 漢江流域을 차지하면서 부터는 新羅가 南方社會의 主役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百餘年뒤에는 三国統一의 大業을 樹立한 것이다.

漢江流域을 先占했으면서도 百濟가 먼저 弱해진 것은 地政學的意味를 갖는다. 傳統的으로 太白山脈은 小白山脈과 더불어 攻擊에 障礙가 되었다. 주로 平野를 타고 大軍이 移動하게 됨으로 百濟는 高句麗와 新羅의 틈바구에 서는 立場이었다.³⁾ 따라서 百濟는 恒常 北으로 高句麗, 東으로 新羅와 二重戰線을 갖고 있었다. 이는 마치 百濟와 新羅의 틈바구에 있던 伽倻가 가장 먼저 (562年) 衰亡한 것과, 高句麗가 唐과 新羅의 틈바구니에서 끝내 亡(668年)한 것과 같은 理致이었다.

세째, 漢江流域을 死守하고 奪還하기 위한 南方의 抵抗은 必死的이다. 羅濟가 聯合한 것은 南北關係에서의 代表的史例 이려니와 高麗 高宗때 (1232年) 撤禮塔의 蒙古軍이 龍仁(妣仁城)에서 官軍도 아닌 僧將 金允侯에게 敗走한 史實과 李朝 仁祖때 (1636~1637) 南漢山城에서 40餘日間 淸軍에게 抗戰했던 일들은 漢江流域死守의 決意를 보여 준 것이다. 그밖에 當時의 超強國인 元이나 淸에게 束手無策이었던 것은 地勢로서의 漢江流域의 弱點이 아닌 關係的位置로서의 韓半島全體라는 次元에서 說明해야 될 것이다.

둘째, 太白山脈, 小白山脈, 洛東江은 南韓에서 第二의 北敵沮止線이자 마지막 堡壘이다. 漢江流域이 喪失되면 北敵은 破竹之勢로 錦江을 突破하게 된다. 그 理由는 漢江의 喪失로 我側은 크게 士氣가 떨어지고 北敵側은 士氣가 衝天할 뿐 아니라 錦江이 東北向이어서 길이에 비해 對北차단 효과가 적은데다 地險이 없이 平野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破竹之勢의 北敵은 小白山脈과 太白山脈 및 洛東江一帶에서 沮止를 당한다. 新羅의 千年社稷과 6.25 當時의 洛東江 防禦線은 意味깊은 일이다.

太白山脈은 新羅故土를 北에서 지켜준다. 古時에 靺鞨族들이 間或 太白山과 小白山一帶로 來襲한 바 있으나 地險때문에 大規模 또는 決定的 兵力投入이 없었으며 6.25 戰亂때 北敵軍이 東海岸의 三陟에 上陸하여 英陽, 盈德을 거쳐 永川北方까지 進出했으나 西南方으로 進擊하던 部隊처럼 大部隊는 못되었다.

小白山脈은 洛東江流域을 막아주는 重要한 要塞였다. 傳統的으로 小白山脈을 넘어 東進하려면 北으로부터 竹嶺(丹陽-豊基間), 鳥嶺(聞慶새재), 秋風嶺(永同-金泉間) 및 六十嶺(長水), 八良峙(南原-咸陽間)를 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境遇에는 南海岸을 利用해야 한다. 따라서 小白山脈 東側과 洛東江 西側의 伽倻가 五百餘年을 健在할 수 있었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小白山脈과 太白山脈을 外廓防禦線으로 하는 嶺南은 北敵에 對하여 마지막 堡壘였으니 6.25 戰亂中 洛東江戰鬪가 現代的事例가 되었음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江과 山을 背景으로 하는 陸地에서의 마지막 堡壘가 嶺南地方이지만 또 하나의 마지막 堡壘가 있으니 그것은 곧 一海 即 多島海이다. 우리는 間或 바다를 隔해 있는 海上 堡壘 多島海의 島嶼들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歷史적으로 볼때 多島海는 우리 民族의 重要한 海軍基地였다. 記錄에는 보이지 않지만 耽羅

国(濟州島)이 百濟에 自進하여 服屬(498年,百濟 東城王때로
 봄)한 것은 百濟의 海軍이 두려워서 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百濟의 海軍이란 大部分 多島海 漁民들이었을 것이다. 統
 一新羅때 張宝高(弓福)가 莞島를 拠点으로 西南海의 海上權을 잡
 았던 史例, 高麗때 金通精이 三別抄(軍)를 이끌고 珍島와 濟州島
 를 拠点으로 하여 여러 섬과 巨文島를 잇는 海上王國을 暫時나마
 建設하여 对蒙抗爭을 展開한 史例, 李朝때 李舜臣將軍이 倭軍을 섬
 멸하던 史例에서 볼때 海軍活動을 하던 사람의 大多数가 多島海나
 沿岸漁民이었을 것임이 分明하다. 金通精의 三別抄에서 对北敵抗爭
 의 마지막 海上堡壘가 多島海임이 立証되었지만 6.25戰亂때도 多島
 海와 濟州島는 北敵에 占領됨이 없이 洛東江要塞를 補助하면서 反
 擊의 拠点이 되었음을 想起하면 重要度가 明白해진다.

3) 北進沮止線：一江 三山

北韓은 原来 滿州나 中原의 北敵을 막아주는 要塞였으며 日
 本南敵의 侵入에 對해서는 最後의 堡壘였다. 그러나 國土의 分斷
 으로 因하여 南韓에 對해 敵對行爲를 敢行하므로써 統一의 길을
 막고 있다. 언젠가는 統一이 되어야 할 北韓의 地勢를 보면
 <圖表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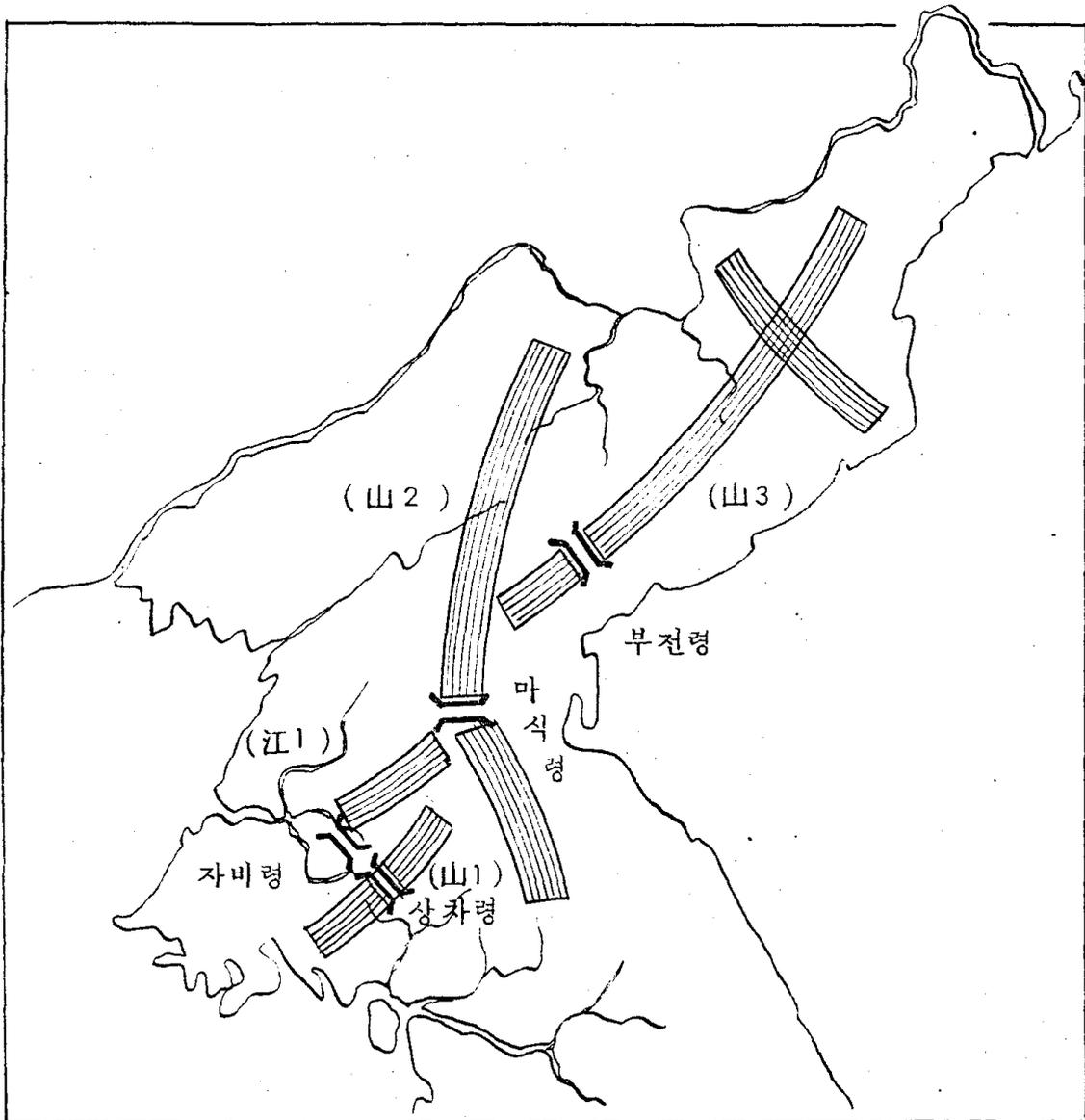
滅惡山脈, 狼林山脈, 咸鏡山脈과 大同江이 一江三山の 重要한 要塞
 가 되는 데 이들은 다른 大小의 江과 山에 依하여 補助도 받음
 은 勿論이다.

첫째, 滅惡山脈은 狼林山脈의 南部에서 西南으로 갈라져 變은 低
 山性山脈으로 黃海道를 거의 南北으로 兩分하고 있다. 滅惡山(815

m), 長壽山(747m) 등이 솟아있고 古時의 有名한 通路인 慈悲嶺은 이 山脈의 中部 北側에 있다. 南側에서 이 山脈을 補助해주는 禮成江과 더불어 重要한 北進阻止線이 되고 있기 때문에 百濟의 強盛期(346~375)에도 大略 禮成江과 波惡山脈의 線을 넘

<圖表IV-2>

北 韓 地 勢



지 못하였으며 統一以前 新羅의 強盛期 (540 ~ 576) 때도 西部戰線으로는 臨津江線을 지키면서 礼成江, 滅惡山脈까지는 進出하지 못하였다. 高麗때는 暫時나마 (1270 ~ 1290) 慈悲嶺 (= 절령 岾嶺)을 境界로 元나라와 境界가 된 적도 있다. 평양을 南敵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北進에 對하여 頑強한 沮抗線이 된다.

둘째, 狼林山脈은 平安道와 咸鏡道の 境界가 되면서 猛扶山 (2,214 m), 小白山 (2,186 m), 狼林山 (2,003 m), 北大峯山 (1,326 m) 등을 連結하면서 元山の 馬息嶺까지 이르는 긴 山脈이다. 新羅強盛期때 東으로는 咸南 利原까지 北進했지만 이 山脈을 넘기 힘 들었음인지 평양으로 西進하지는 못했다. 劍山嶺 (덕천 - 咸興間), 巨次嶺 (陽德 - 永興間), 기린嶺 (陽德 - 高原間), 馬息嶺 (平양 - 元山間) 등을 通過하더라도 겹겹이 山이기 때문이다. 元山以南과도 鉄嶺으로 遮斷되기 때문에 高麗때 20年間 慈悲嶺 - 鉄嶺線으로 元과 境界로 삼은 적이 있다.

셋째, 大同江은 北韓에서 가장 重要한 要塞이며 堡壘이다. 狼林山 밑에서 發源한 大同江은 水量이 많고 流域平野가 넓으며 可航거리 260 km여서 戰略要塞로서 面値가 있기 때문에 평양의 役割이 括目할 만한 바 있었을 것이다.

百濟의 近肖古王이 精兵三萬을 거느리고 평양城을 攻擊하여 致國原王을 戰死시켰으나 다시 돌아왔던 것은 抵抗이 強力했다는 것도 하나의 原因이었을 것이다. 또한 新羅가 漢江流域을 占有하고 南方의 強者가 되었지만 평양까지 進出하여 新羅의 版圖를 만든 것은 約

110餘年 뒤의 일이며 그것도 唐과 南北에서 挾攻하지 않았던 들 不可能했을른지도 모른다. 結局 高麗가 新羅의 遺産을 바탕으로 大同江을 突破하여 鴨綠江 河口까지 進出하는 데는 300餘年の 歲月이 所要되었다. 壬辰倭亂때는 小西行長の 倭軍과 우리의 軍民間에 半年餘에 걸쳐 勝敗를 거듭했던 史例에서도 大同江 防禦線이 大端히 堅固함을 말 해준다.

네째, 咸鏡山脈은 有力한 南敵防禦線이다. 咸北에서부터 狼林山脈까지 길게 뻗은 咸鏡山脈은 東南側은 急傾斜이고 北側이 緩傾斜인 蓋馬高原의 一部이기도 한 咸鏡山脈은 韓國의 알프스이기도 하다. 新羅 眞興王때 黃草嶺과 摩雲嶺을 넘지 못하였으며 高麗도 그 附近一帶에 九城(1107年)을 쌓았을 뿐 그 以北의 契丹族을 攻擊하지 못했다. 李朝때 加藤清正의 倭軍도 咸鏡山脈을 避하여 海岸平路를 따라 會寧까지 北東上 했을 뿐이다.

大同江 流域을 占領하면 淸川江을 건너 鴨綠江까지 進出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平野의 連結인 데다 大同江의 喪失로 이미 士氣가 격였기 때문이다. 다만 遼東이나 滿洲一帶를 席卷한 政權의 強弱과 態度가 새로운 問題로 提起되는데 이는 關係的位置의 次元에서 檢討될 問題이므로 여기서는 詳論을 피하는 데 高麗가 大同江流域에서 쉽게 平定했던 곳은 西部戰線은 鴨綠江方面이었고 蓋馬高原의 進出은 朝鮮朝 初期였다는 것을 보아도 大同江要塞以後의 마지막 보루는 狼林山脈以東, 咸鏡山脈以北의 蓋馬高原一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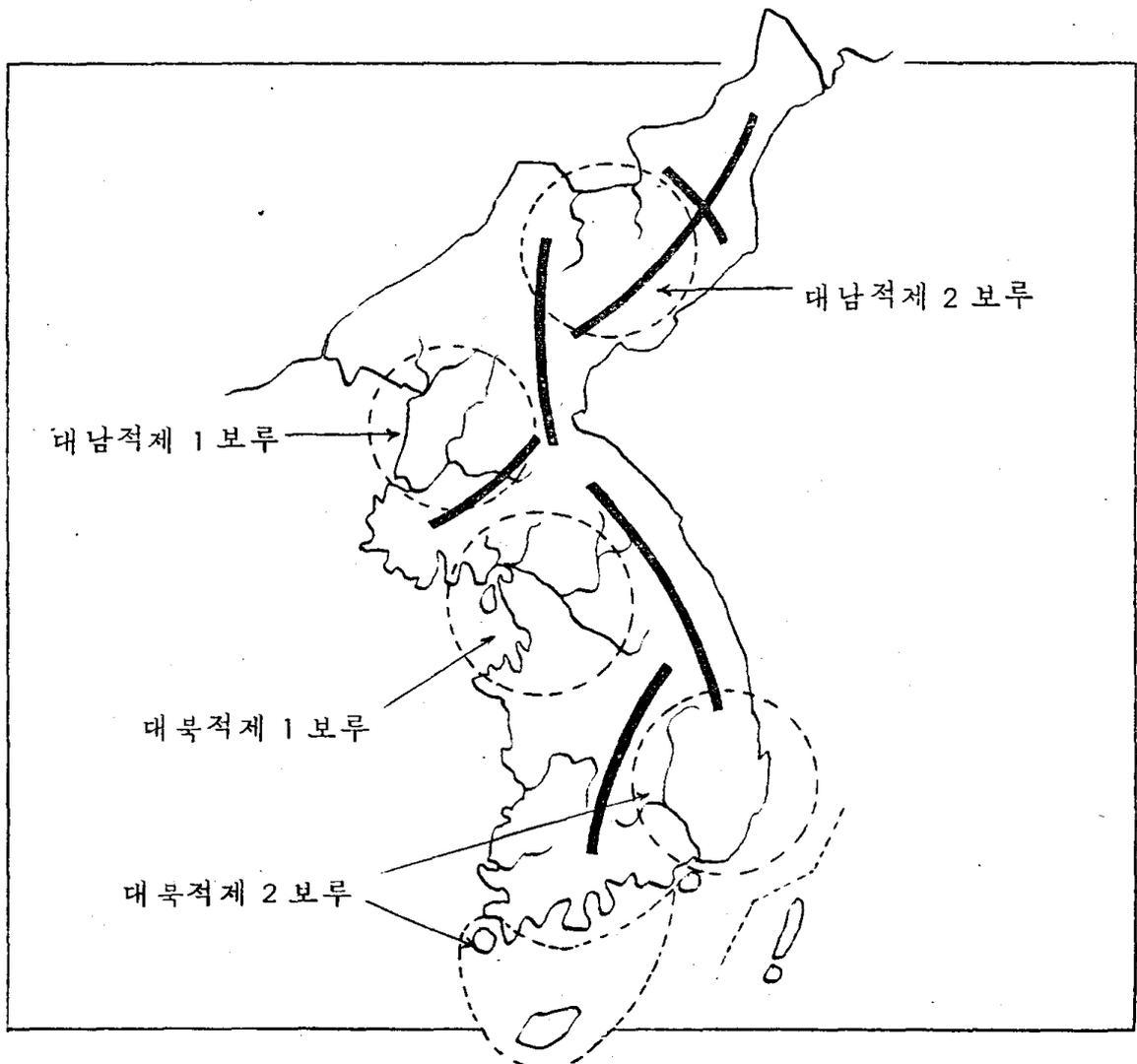
(4) 南北의 最後 堡壘

南敵에 依한 大同江流域 占領 뒤에는 蓋馬高原이란 最後의 보루가 있다. 北敵에 依한 漢江流域 占領以後에는 嶺南地方이란 最後의 보루가 있음은 上述한 바와 같다. 이는 <圖表IV-3>과 같이 表示된다.

여기서 南方의 對北敵보루와 北方의 對南敵보루를 比較해 볼 必要가 있다. 理解를 돕기 위하여 圖表화 하면 <圖表IV-4>와 같다.

<圖表IV-3>

對南·北敵보루



<圖表Ⅳ-4>

南北要塞의 強弱點比較表

南 方 要 塞	北 方 要 塞
<p>(1) 쫓길수록 人口가 密集한다 : 百姓들은 防禦線과 더불어 避難後退하나 바다가 있어서 流出量이 적다. 即, 背水陣이 쳐있기 때문이다.</p>	<p>(1) 쫓길수록 人口가 줄어든다 : 百姓들은 防禦線과 더불어 避難, 後退하나 滿洲와 陸統되었기 때문에 流出量이 많다.</p>
<p>(2) 軍·民이 一体가 된다 : 避難同胞는 軍과 함께 살면서 賦役을 提供하며 充員資源이 된다.</p>	<p>(2) 軍·民이 分裂된다 : 눈 앞의 避難처를 憧憬하는 百姓과 이를 억누르는 軍과는 對立과 抗爭이 일어난다.</p>
<p>(3) 南方은 온통 義兵抗爭地가 된다 : 피난 못한 百姓은 山속에 潛伏하여 大小의 抗爭을 벌인다. 생존권을 갖기 위함이다.</p>	<p>(3) 北方은 온통 空虚地가 된다 : 모두 피난했거나 피난 못한 동포의 경우에는 生活与件이 낡은 南方에 쉽게 同化된다. 中國이라는 他國보다는 同族社會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p>
<p>(4) 相當히 튼튼한 生活圈이 造成된다 : 嶺南平野의 食糧과 海産物이 있기 때문이다.</p>	<p>(4) 生活圈이 到底히 形成되지 못한다 : 人口가 적고 더군다나 蓋馬高原은 粟黍나 귀리의 産地일뿐</p>

南 方 要 基	北 方 要 基
<p>(5) 海上에서 補助勢力이 있다 : 多島海와 濟州島는 住民과 避難민이 살면서 淸후보루와 連結을 갖고 海上作戰과 海上 支援勢力이 된다.</p>	<p>아니라 海산물도 없다 따라서 食料가 絶对不足한 状态가 된다.</p> <p>(5) 補助勢力이 없다 : 中国이나 蘇聯으로 避難한 百姓은 그곳 生活에 同化된다. (다만 難民問題와 国境에 对한 危圧感때문에 中·蘇가 自動的으로 介入하여 抗争勢力은 中·蘇의 傀儡가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는 別個次元의 問題이고 自体的인 보루効果는 이미 喪失된다.</p>
<p>結局 南方은 如何한 경우에도 主体的 役割을 하고 主体勢力이 될 수 있어서 단독으로 한 나라를 維持할 수 있지만 北方은 不可避하게 外勢의 앞잡이가 되든가 外勢에 依附할 可能性이 높다.</p>	

3. 最後의 主人

(1) 主人의 資格

漢江流域을 지키던 百濟의 土台위에서 新羅는 強盛해졌고 大

同江-元山灣線까지 統一新羅王朝가 展開되었다. 高麗는 다시 統一新羅의 基礎위에서 鴨綠江河口-咸興만까지 進出했으며 朝鮮王朝는 다시 高麗의 基礎위에서 鴨綠江-豆滿江까지 進出했다. 實로 大同江에서 豆滿江까지의 進出은 381年(668~1049)이란 긴 歲月이 흘렀다.

韓半島가 高句麗, 百濟, 新羅, 伽倻四國으로부터 朝鮮으로 一國化 즉 統一이 이루어지는 1,000餘年の 歷史에서 民族의 離合은 重要な 意義를 갖는다. 伽倻의 國亡으로(562) 生存者의 大多數는 新羅의 百姓이 되고 當時의 微弱한 航海術때문에 極少數는 日本으로 또 若干은 百濟로 避難했을 것임은 當然하다. 百濟의 國亡으로 生存者의 大多數는 新羅人이 되고 極少數는 島嶼나 日本으로 避難했을 것이다. 高句麗의 國亡(668)에서는 正反對가 된다. 겨우 大同江以南만의 統合이었기 때문에 大多數는 大同江 以北의 高地에 避難하고 若干은 唐의 山東半島 附近一帶로 移住당했으며 安勝을 爲始한 高句麗 復興勢力 4,000餘戶만이 新羅人이 되었다. 高句麗 國亡時 全體國勢 697,000戶 가운데 4,000餘戶는 0.6%밖에 안된다. 그 밖에 大同江以南에서 避難하지 않은채 自動적으로 新羅人이 된 사람은 훨씬 많겠지만 20% 未滿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即, 百濟人 約 76萬戶가 新羅人이 되는데 比하여 高句麗人은 約 14萬戶未滿이 新羅人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557,000戶는 大多數가 渤海人이 되고 少數는 中國人이 된 것이다. 그 뒤 渤海가 亡(926)하자 大多數는 契丹人이 되고 約 10萬名이

高麗人이 되었다. 5) 그 뒤 渤海遺民中의 一部인 女真人들이 朝鮮時代에 相當數 朝鮮人으로 歸化함으로써 韓民族이 形成되었다. 歸化民은 萬一의 事態에 對比하여 内地로 移動 및 分散되는 것이 常例이다. 따라서 鴨綠江線과 豆滿江線으로 軍部隊가 進出하는 동안 現地 被征服民의 一部는 못다 移住된 채 按撫되고 一部는 移住된다. 그 동안 征服地의 開拓役軍(民間人)은 思想이 健健한 南方同胞의 移住 即 植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居住地의 移動은 過去의 國境을 없었고 移住와 植民은 韓半島內의 各種 民族들을 混血시킴으로써 單一民族이 되었다. 國土의 單一化(統一)와 民族의 單一化(統一)過程에서 南方의 役割은 그만큼 컸다. 高麗의 中·南部住民들이 慶陽에 移住 및 開拓하였고 李朝의 中·南部住民들이 鴨綠江 以南一帶와 豆滿江 以南一帶에 植民(移住)되어 開拓을 하였다. 實로 北方의 開拓은 數百年으로부터 千餘年에 이르는 힘든 過程이었다. 따라서 韓半島 南方의 勢力이 正統勢力이 되었으며 主人으로서의 役割을 다 한 것이다.

(2) 攻勢型과 守勢型

오늘날 北韓은 國家形成의 順理的 理致에서 成立된 것이 아니고 外勢에 依해 強制로 成立된 團體이다. 따라서 옛날 南方勢力이 平定하고 開拓하던 方式으로 北韓이 南韓에 統合되리라는 保障은 未知數이다. 그러나 武力對決이 있는 限 北韓이 終局的으로 劣勢이며 外勢의 介入이 없는 限 南韓에 依해 平定될만한 理由가 있다. 地勢는 人間이 만든 것이 아니고 超越者가 만든 것이므로

金日成이나 傀儡軍이 變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도 옛 사람과 마찬가지로 漢江을 메꾸지 못할 것이며 小白山脈과 洛東江을 넘지 못할 것이다. 多數로 少數를 치는 것이 兵法의 原理인데, 예나 지금이나 南으로 쫓길 수록 多數가 된다. 그러나 反對로 大同江까지만 北進하면 北韓의 餘他地域은 外勢가 가만히 있는 限 自動적으로 南韓의 手中에 떨어지게 된다. 北進은 갈수록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 土台위에서 政府와 軍事力의 役割이 重要해지는 데, 知·德·體에서 優勢하니만큼 더욱 有利한 것이지만 그것은 地勢와는 別個問題여서 省略한다.

오늘날 現代化된 兵器는 地勢나 兵力을 圧到할 수 있다. 그러나 兵器技術은 普遍化되기 마련이어서 超強大國級·強國級·強小國級 및 弱少國級の 級別 差異만 있지 같은 級에서의 差異는 없다. 南北韓 똑같이 強小國이지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 따라서 兵器, 兵力面에서 百中の 勢를 이루고 있다. 이 추세는 時間의 經過에 따라 變하여 多少間 差異가 생기겠지만 大差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不變要素인 地勢가 大勢를 決定하게 된다.

單純히 地勢로만 볼때는 北韓은 山岳이 많아 攻勢型이고 南韓은 平野가 相對적으로 더 많아 守勢型이다. 그러나 地勢에 따라 人間의 活動이 配合되기 때문에 韓半島의 運命은 攻勢型과 守勢型만으로 決定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說明한 歷史上의 韓半島의 運命이었다. 6.25 動亂때 南韓은 瞬息間에 漢江線이 무너지고 洛東江 要塞까지 後退하였다. 그와같은 事態가 다시는 없으리라는 保障

은 없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①南韓이 三国時代처럼 西部와 東部가 二国으로 分離된 경우와 ②解放直後처럼 他國의 支配하에 있다가 今方 解放되어 政府의 形態는 있어도 아무런 機能을 미치지 못하여 政府도 없고 軍隊도 없는 狀況일 때 있을 수 있다. ①의 境遇는 古代로 돌아가지 않는 限 있을 수 없다. ②의 境遇도 現代의 國際事情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10.26 事態(1979年) 直後처럼 無政府 狀態가 되고 軍隊까지 없는 狀況이 된다고 하면 洛東江이 피로 물들고 안들고의 与否는 完全히 北韓側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高句麗의 漢江一帶占領과 北傀軍의 南侵은 國家興亡의 見地에서 볼 때는 當然한 것이면서 典型的인 事例가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이 보여준 歷史의 教訓은 큰 것이었다. 이 점은 守勢型인 南韓의 地勢狀況에서 갖는 弱點이 되겠다. 主人된 우리는 守勢型이면서도 끝내 強하고 優越했던 地·人調和의 長點을 理解하고 地만의 守勢性에 미리 겁먹는 愚를 犯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V. 關係的位置와 外交

1. 南北의 關係的位置 概觀

韓半島는 亞細亞大陸의 東北部에 位置한 큰 半島이다. 半島의 北部는 鴨綠江과 白頭山 및 豆滿江을 境界로 中國과 맞닿아 있고 東北一角은 豆滿江下流에서 朝鮮과 連接해 있다. 中國과의 國境線은 約 1,300 km에 達하나 蘇聯과의 國境線은 16 km에 不過하다. 東南으로는 바다를 넘어 46 km 건너편에 日本의 對馬도가 있고 下關은 約 180 km 距離에 있다. 半島自体만 보면 東西의 幅이 約 250 km밖에 안되지만 南北의 길이는 濟州 까지 延長 約 1,300 km나 되는 길다란 形態이다. 여기서 韓半島가 갖는 關係的位置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볼 수 있다.

첫째는 辺方國家라는 것이다. 韓半島地圖만 個別的으로 보면 辺方임이 쉽게 感知되지 않으나 中國地圖를 놓고 보면 韓半島는 山東半島, 遼東半島, 九龍半島보다 規模만 클 뿐 中國本土의 辺方의 一部로 보인다. 따라서 中國의 附屬地帶로 誤認받기 쉽다. 이때문에 漢, 隋, 唐, 元, 淸 등 中國의 統一王朝들은 자주 侵略하였으며 元나라와 淸나라는 實際로 韓半島 全體를 一時的으로 占領 또는 屬國化시킨 바도 있다. 이境遇는 一方優勢時에 可能한 일이다.

둘째는 半島國家이다. 半島이기 때문에 天然的·人爲的事物에서 大陸的要素와 海洋的要素가 複合되어 있고 大陸指向的 및 海洋指向的要素가 共存하며 親大陸勢力과 親海洋勢力이 兩立할 수도 있다.

셋째는 橋樑國家이다. 文物과 人類가 大陸에서 日本으로, 日本에서 大陸으로 건너간다. 交通과 通信의 發達로 그 機能은 漸次 喪失되고 있지만 完全히 없어질 수는 없다.

네째는 中間國家이다. 中國과 日本 및 蘇聯의 中間에 位置하기 때문이다. 中間國家는 積極的機能과 消極的機能을 갖는데 積極的機能은 周圍의 國家들을 併呑하거나 操縱하는 일이며 富強한 境遇에 可能하다. 消極的機能은 위축되고 갈팡질팡하며 이웃나라의 눈치를 보느라고 自主性을 크게 喪失하는 일이며 이는 大概 貧弱한 境遇에 可能하다.

이렇게 볼때 韓半島는 有利한 條件과 不利한 條件을 兼備한 셈이다. 禍와 福이 自体에서 發源할 수 있는 素地가 있을 뿐 아니라 周邊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狀況인 것이다.

드디어 韓半島는 外的要因이 거의 絶對的인 作用을 하여 南北으로 分斷되었다. 中國·蘇聯·日本이 現狀態로라면 韓半島는 統一이 되어도 相對的으로 弱勢에 있는데 雪上加霜으로 分斷까지 되었다. 이는 韓民族의 生存權에 致命打가 되었다. 多幸히 現在로서는 大陸勢와 海洋勢間에 均衡이 잡혀있고 大國이 小國을 함부로 併呑해서는 안된다는 最少限의 國際道義가 維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작아진 南과 北이 現狀을 維持하고 있다. 이제부터 國際政治가 어떻게 展開되느냐가 韓半島의 運命에 큰 影響을 주겠지만 앞으로의 進展은 未知數로서 占치기 困難하다. 다만 確實하고 希望的인 未來의 事態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如何히 極惡한 境遇에도 韓半島라는 땅덩어리가

없어지지 않는 양으리라는 것과 둘째, 如何한 境遇에도 周边国이나 關與国에 被害가 없이 韓民族만 죽으라는 法은 없을 것이란 것이다. 換言하면 한반도라는 땅덩이는 그 나름의 天賦的인 價値를 發揮할 것이며 韓民族 亦是 그 나름의 役割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關係的位置에서 본 땅과 人間의 役割을 檢討하기로 한다.

2. 南北韓의 國際關係

(1) 自主성과 國際的地位

國境線은 한나라의 主權行使의 範圍를 設定한 限界線이다. 따라서 全体 版圖中에서 國境線과 海岸線의 길이에 따라 主權行使 範圍가 크고 작음이 決定된다. 國境線이 길고 海岸線이 짧을 수록 制約이 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單純한 海洋率의 크고 작음과는 다르다. 말레이 반도는 海洋率은 크지만 外國인 泰國과 接境地帶가 있어 結局 짧은 接境때문에 有事時에는 主權에 重大한 影響을 받게 된다. 따라서 國境線이나 海岸線의 길이 만이 問題가 아니고 몇나라와 接境인가 그 接境이 弱少国과의 接境인가 強大國과의 接境인가 하는 接境의 量과 質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를 測定하기 위한 試圖로 壓力指數 即 自國人口에 對한 隣接國人口의 對北值 公式이 있으나 이것은 国力을 人口라는 單一要素에 局限시킨 缺點이 있어 未恰하다. 結局 主權行使에의 制約度를 測定할 正確한 公式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接境線의 質量을 單純化하여 計算할 수 밖에 없다.

첫째, 北韓은 南韓·中共·蘇聯·三大勢力과 接境하여 接境數가 3

이며 南韓은 北韓과의 接境뿐이어서 接境數가 1이다.

둘째, 北韓은 훨씬 強大國인 蘇聯·中共과 接境하고 比等한 韓國과도 接境한다. 훨씬 強大國의 接境質을 2로 보고 比等한 國家와의 接境質을 1로 볼때 北韓은 $2 + 2 + 1 = 5$ 의 接境質을 가지며 南韓은 1에 不過하다. 따라서 北韓은 接境數 3 接境質 5를 갖고 南韓은 接境數와 接境質 各 1을 갖고 있다. 두 數值의 合計를 壓力指數로 한다면 北韓에 對한 壓力指數는 8이며 南韓에 對한 壓力指數는 2에 不過하다. 8對 2라는 數值가 正確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北韓이 南韓보다 훨씬 많은 壓力을 받아 自主性이 적을 것임은 明白하다. 說令 友好國과의 接境이라 하더라도 潛在的負擔感은 마찬가지다. 國境線이란 當初부터 實力對決의 產物이기 때문이다.

北韓은 鴨綠江·豆滿江·白頭山을 境界로 中·蘇와 接境하고 있다. 江이나 山이 一方独占이 아니어서 渡江이나 越山이 容易하다. 더군다나 겨울에는 江들이 結氷하여 陸地보다 더욱 便利한 通路가 된다. 따라서 中·蘇國과 北韓사이의 山河는 防禦機能이 至極히 적다. 東北에 이같은 脆弱點을 갖고 兩으로는 活火山과 같은 休戰線을 境界해야 하는 것이 北韓이다.

友好的이라고 해도 北韓은 接境問題로 여러가지의 神經을 써야 한다. 먼저 中共과의 關係에서 몇가지 事例를 보면 直通鐵道運行協定締結(54.4.1), 豆滿江治水工業計劃書에 關한 議定書調印(58.4), 邊境地方商品交流議定書調印(58.12.16), 雙方國境線河川航海協定調印(60.5.23), 鴨綠江·豆滿發電利用에 關한 協定調印(63.11.25),

北韓行送油管開通 (76.1) 등이 그것이다. 소련과의 關係에서도 양국
간 通商 및 航路條約締結 (60.6.23), 直通鐵道運行協定調印, 友誼橋
(豆滿江河口) 竣工 (57.8.4) 등 문제들이 있었다. 問題들이 많기
때문에 大小의 利害打算과 雜音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北
韓은 弱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면 참아야 한다. 最近 (80.
10.6) 中共이 괴물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白頭山 天池가 中共側
單獨所有인 듯한 얘기를 해도 北韓에서는 감자코 있으면서 속만 상
하는 것이 한개의 事例가 되겠다. 1) 特히 北韓은 두 超強國과 接
境하여 있기 때문에 不可避하게 低姿勢를 取할 수 밖에 없다. 따
라서 政治·軍事·經濟·文化 모든 分野의 交流에서 中共 또는 蘇聯
에 一辺倒的이다. 따라서 南韓이 大陸性을 면 傳統文化에 海洋文化
(先進文化) 를 添加함에 비하여 北韓은 大陸性을 면 傳統文化에 또
大陸文化만을 添加함으로써 保守와 落後를 免할 길이 없다. 中·蘇
가 海洋의 先進文化를 導入하지만 그 <先進>을 당장 北韓에 提供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北韓을 지키기 위해서는 政策的으로 文化的
쇄국정책을 取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언제나 時差現象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비하여 南韓은 休戰線만 除外하면 三面이 公海여서 海洋進出
이 容易하고 게다가 北韓이라는 障壁때문에 大陸進出이 막히는 代身
海洋을 통한 國際的進出이 旺盛하다. 西獨·美國·카나다·사우디아라
비아·이란·이라크·괌島·인도네시아·브라질·알제틴등에의 就業 및 移
民을 통한 進出樣相은 北韓으로서는 흉내도 못내는 高次元的이고 包

括的인 外交인 것이다.

人士의 往來와 物資의 交換은 自然히 文化全盤에 걸친 多樣性이 加味된다. 오늘날 韓國文化는 지나치리만큼 多樣해졌다. 國民의 多樣한 政治的價值觀은 여러차례의 革命과 憲法改定을 招來했고 多樣한 經濟觀念은 産業開發·不動產投機등 曲折과 起伏을 招來했다. 純粹文化에서도 獨創과 多樣이 지나쳐서 頹敗性이 두드러지는 境地에 까지 이르는 것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民智의 創意性이 높아졌음을 봄과 同時에 지나침도 보는데 지나침은 거의 週期的으로 整理되기 때문에 적어도 創意性에서는 得을 보는 것이다. 無智에서 踏步하는 百姓과 創意로 試行錯誤를 犯하는 百姓은 다르다. 文化의 成長動機가 變異(Variation), 發明(Invention), 試案(Tentation), 借用(Borrowing), 遺産(Heritage)으로 보는 머독(Murdock, G.P)의 見解²⁾가 얼마만한 公認度를 가졌는지는 모르나 相當한 信賴度를 가졌음은 分明한데 이 基準에서 볼 때 韓國의 試行錯誤(試案)는 北韓의 無智보다 文化成長의 貢獻度가 훨씬 큰 것이다.

한 나라가 自意에서건 他意에서건 간에 對外政策에서 지나치게 一 邊倒의일때 그 나라의 自主性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그로 因하여 窮極的으로 偏狹한 一元的인 文化가 形成되며 民度는 그만큼 落後하게 된다. 現在 南·北韓은 바로 政治的自主性과 文化의 劃一 또는 多樣的 差異를 갖고 있는데 그 原因 가운데 重要的 것이 바로 北韓은 中·蘇에 接境해 있고 南韓은 公海와 接하고 있다는 地理的原因인 것이다.

(2) 同盟關係

位置에서 볼때 北韓은 二面包圍・一面對峙이고 南韓은 一面對峙이다. 即, 北韓은 三大勢力에 依해서 막혀있다. 따라서 北韓은 中・蘇와 軍事同盟을 맺었고 이에 對備하여 韓國도 美國과 軍事同盟을 맺었다. 同盟國 數量에서 北韓이 南韓보다 유리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그와 反對現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南北韓의 同盟 및 支援勢力을 檢討해 보자.

첫째, 北韓의 同盟國인 中共과 蘇聯은 50年代 後半부터 分裂하여 對立 및 敵對關係에 있다. 中・蘇의 對北韓共同步調는 6.25 戰亂當時의 4~5年間に 不過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 理由는 美軍이 南韓에 駐屯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54年 10月부터 58年末까지 中共軍이 北韓에서 完全 撤収한 事態에서 가장 뚜렷이 把握할 수 있다. 56年부터 中蘇間에 이데올로기對立이 始作되었고 58년에는 中共支援 蘇聯技術者들이 撤収했다. 이같은 不和속에서 中共軍의 北韓駐屯은 蘇聯에게는 北韓의 喪失로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單純히 美軍의 撤収를 促進키 위한 名分을 提示하기 위해서였다면 美軍이 不撤収하는 동안 中共軍이 다시 進駐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再進駐가 없는 것은 蘇聯의 制動作用이 큰 原因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보지않을 수 없다. 이는 中共軍 撤収를 前後한 56年부터 57年사이에 金日成이 蘇聯을 三回(56.6.1, 56.10.17, 57.11.3)나 訪門하면서도 中共에는 한번도 가지않았던 事實에서 確認할 수 있다.

이같은 中・蘇對立 次元을 떠나서 地理的으로 볼때도 北韓은 恒常

對立狀態에 있는 두나라와 接境하게 되어 있다. 換言하면 北韓은 언제나 西北外勢(中原勢力)와 東北外勢(東北異民族勢力)과 接境하여 두 勢力에 의한 줄다리기에서 몸조심 해야하는 處地에 있게 마련이다. 그 例를 歷史에서 찾아보면 <表V-1>과 같다.

<表V-1> 歷史上의 西北 및 東北外勢

	西 北 外 勢	東 北 外 勢
高句麗 (BC 37~668)	초기 ~ 220경 漢(四郡), 魏 220경 ~ 264 魏 265 ~ 304 西普 304 ~ 386 燕 386 ~ 534 北魏 534 ~ 581 東魏→北齊→北周 581 ~ 618 隋 618 ~ 亡(668) 唐	초기 ~ 346 扶餘 鮮卑 烏桓 突厥 (順)
渤海 (699 ~ 926)	초기 ~ 907 唐 907 ~ 亡 五代	黑水靺鞨 907 ~ 亡 契丹
高麗 (918~1392)	918 ~ 1115 契丹(遼) 1115 ~ 1206 金(女真) 1206 ~ 1368 元 1368 ~ 1392 明	初期 ~ 1392(生) 女真
朝鮮 (1392~1910)	1392 ~ 1616 明 1616 ~ 1636 明 1636 ~ 亡 清	1392 ~ 1616 女真 1616 ~ 1636 " (後金) 1860 ~ 1910 " (蘇聯)
韓國 (1945~현재)	中 國	蘇 聯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北方에 傳統的으로 二大對立勢力이 存続되어 왔는데 그들 사이에는 모두 對立과 鬪爭이 繼續되었을 뿐이다. 다만 對立期間에 比하여 平和期間이 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平和共存은 鬪爭을 위한 暫定的平和이어서 暗鬪는 그 칠 사이가 없었다. 오늘날 蘇聯은 傳統的으로 靺鞨이나 女真이 찾아했던 자리에 代身 들어 섬으로써 東北外勢가 되고 中原의 西北外勢와 競爭, 對立關係에 서 있다. 그때문에 中·蘇는 서로 北韓을 自己便으로 誘引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은 양쪽과의 同盟이 오히려 逆作用을 하여 줄타기 外交를 하느라고 一便으로는 外交的 負擔이 크고 一便으로는 親中, 親蘇 兩大路線의 갈림길에서 國論의 統一이 어려워진다. 韓末 우리나라에서 親日派, 親露派, 親淸派로 갈라져 國論이 分裂되고 國家大計가 갈팡질팡했던 바와 똑같은 狀況이어서 國家發展에 莫大한 支障을 받아 相對的으로 國力伸張이 적음으로 劣勢에 몰릴 것은 當然하다.

오늘의 北韓과 가장 類似한 土着의事例로 渤海를 들 수 있다. 關係的位置에서 본 渤海와 北韓의 國際關係는 <表 V - 2>와 같다.

<表 V - 2> 渤海와 北韓의 國際關係比較

	渤 海	北 韓
西北外勢	唐(末期부터는 契丹)	中 共
東北外勢	黑水靺鞨	蘇 聯
南方外勢	新羅(後에 高麗)	大韓民國

첫째, 渤海의 西北外勢는 唐 即 오늘의 中国이었다. 末期에는 唐의 衰弱化로 契丹이 일어나 唐을 压迫하면서 華北으로 進出함에 따라 契丹이 唐을 代身하게 되었다. 따라서 唐이나 契丹이나 西北에 位置함은 마찬가지였다. 西北外勢는 古今을 通해 같은 位置에 있는 것이다.

둘째, 東北外勢는 다소 性格이 다르다. 渤海는 大多數의 靺鞨部族을 統合하여 國民으로 만들었었다. 反抗적이던 黑水靺鞨도 거의 征服되었기 때문에 事實上 東北外勢가 없는 것으로 誤認 받는다. 그러나 오늘의 蘇聯 沿海洲를 包含한 東南시베리아 一帶와 東北滿洲一帶에 사람이 黑水靺鞨뿐이 아니었다. 史料의 不足으로 渤海의 東北國境을 正確히 그릴 수는 없으나 渤海版圖 東北面에 누군가 同化나 統合이 안된 部族이 있었을 것은 分明하다. 단지 그들의 力量이 微弱하여 渤海에 對해 큰 影響을 주지 못하였음이 오늘날 蘇聯의 커다란 影響과 다를 뿐이었다.

셋째, 南勢로 新羅가 있다가 뒤에 高麗가 되었는데 南勢가 強力히 對峙하여 있었던 點은 古今이 같다.

北韓과 類似한 狀況에 있었던 渤海는 約 230年間 存続했었다. 이 期間은 新羅, 百濟, 高麗, 朝鮮 어느 王朝보다도 짧은 期間이었다. 그것도 東北外勢가 微弱한 狀態인데다 北韓보다 領土가 10餘倍나 넓은 強大國이었음에도 그렇게 壽命이 짧았다. 理由는 2~3 大勢力속에서 그만큼 自己發展의 餘裕가 없었기 때문이다.

北韓이 過去의 渤海처럼 中国(當時契丹)에 依해서 亡하느냐, 아

니면 契丹이 金(女真)에 依해서 亡했듯이 東北外勢인 蘇聯에 依하여 亡하느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国土와 民族을 喪失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 國民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假令 韓國이 北進한다고 할 때 中共과 蘇聯은 自國의 安保와 國益保護를 위하여 自動的인 介入이 不可避 할 것이며 이는 必然的으로 現 北韓을 中共, 蘇聯, 韓國이 三分하여 占領하게 될 것임을 쉽게 짐작된다. 따라서 北韓과의 同盟國이 지금은 北韓을 서로 끌어 안으려는 關係이지만 有事時에는 北韓을 分割占領 할 勢力 即 大敵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比하여 南韓은 同盟關係가 그다지 負擔스럽지 않다. 新羅와의 同盟國인 唐나라는 18年(660~677)만에 쫓겨났다. 지금 韓國과의 同盟國인 美國은 占領이 아닌 協調의 位置에서 北敵의 防備에만 関與하고 있는 편이다. 南韓과의 同盟國이 오랫동안 駐屯하지 못하거나 至極히 協調的인 位置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첫째, 어느 同盟國이건 友好國이건 바다를 건너온 勢力이기 때문에 生活与件, 軍備調達, 戰鬪活動이 不便하다. 이때 同盟國이 만약 폐단을 저질러 住民의 反抗에 부닥치는 경우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다. 唐나라가 新羅勢力에 依하여 逐出된 것이 좋은 事例이다. 둘째, 오랫동안 進駐하려는 限 協調的인 位置에 있을 수 밖에 없다. 干涉이 지나치면 唐나라가 겪었던 困苦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現實的으로 北韓内에서는 外軍이 駐屯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첫째는 中蘇가 서로 警戒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接境건너 편

에서 쉽게 北韓의 內政과 外交 즉 主權을 얼마든지 操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은 事實上 中蘇 雙方 또는 어느 一方의 半屬國이나 다름없다. 南韓에는 美軍이 駐屯을 하고 있으나 이는 大陸勢力을 防禦 및 抑制하기 위한 戰略價值 때문이기에 現在 南韓의 힘에 便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美軍이 駐屯해 있지만 協調는 해도 主權까지 侵害는 못한다. 結局 南北韓은 主權國 對 傀儡國의 對峙樣相이요 主人과 賣國賊과의 對峙樣相이다. 따라서 程度가 좀 甚해지면 中·蘇는 北韓에 對한 帝國主義的侵略軍이 될 것이며 美國이나 日本 또는 어느 다른 南韓의 同盟國은 有事時의 暫定的 支援國이 되는 그 以上の 行悖는 못부린다는 것이다.

(3) 戰略價值와 外交

海上을 누비는 軍事大國이나 經濟大國의 눈에 비친 南·北韓의 價值는 크게 다르다.

첫째, 우리나라의 開港史를 볼때 釜山, 蔚山, 鎭海附近인 三浦(富山浦, 영포, 乃而浦)의 開港(1426)을 필두로 元山(1880) 仁川(1883) 木浦와 鎭南浦(1897), 郡山, 馬山, 城津(各 1899), 용암포(1904)가 開港되었다. 主要港口가 南韓쪽에 훨씬 많다.

둘째, 戰爭 史에서 볼때 唐軍이 百濟攻擊을 위하여 長項附近으로 上陸(660)하였고 隋나라 大軍의 一部가 鎭南浦附近에 上陸을 試圖했고 高句麗攻擊時(667)의 唐軍은 鎭南浦附近의 上陸을 試圖했다. 6.25 戰亂때 美軍이 釜山, 仁川, 元山을 통해 上陸했고 北傀

軍의 一部가 江陵과 三陟으로 上陸했다. 南北에 上陸地点이 많다.

셋째, 우리나라 海上進出史에서 볼때 統一新羅의 완도(靑海鎮)와 高麗때의 벽난도(예성강하구) 李朝때의 釜山, 麗水 木浦가 各各 海上進出基地였거나 貿易 또는 海戰 基地 역할을 하였다. 海上進出基地가 南韓에 치우치고 있다.

네째, 현재에서 볼때는 新開發港口가 많은데 浦項, 三千浦, 東海등이 南韓에 있고 羅津, 金策, 新浦, 咸興등이 北韓에 있다. 北韓의 海上進出意慾이 東海北區에 있으나 東海는 韓國과 日本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다섯째, 外軍의 上陸前哨基地가 된 島嶼로는 日本이 강화도를 攻擊하여 강화도조약(1876)을 맺은 바 있고 天主教와 關聯하여 프랑스海軍도 1866年과 1871年에 이 섬을 공격한 바 있다. 英國이 러시아 勢力의 南下를 警戒하여 거문도를 一時(1885.4~1887.2) 占領한 바 있으며 多少 意味는 다르나 한때 元나라가 제주도를 占領(1273~1294)하여 牧馬場으로 使用한 바가 있다. 또 和蘭船員 하멜(Hendrik Hamel)이 漂流하다 제주도에 上陸(1653)한 바도 있다. 美國商船 쉬만將軍號(General Sherman)가 대동강에 進入(1866)한 바도 있다. 그밖에 英國商船(1831)과 프랑스軍艦(1846)이 忠淸道海岸에 나타나 通商을 要求하거나 示威한 바 있으며 蘇聯艦船이 咸鏡道海岸(1865)에 나타나 通商을 要求한 바도 있다. 海洋勢力의 關心對象地가 南韓이다.

여섯째, 半植民地的地位로 轉落되었을 때는 中國이 平安, 黃海道沿

海의 漁勞權을, 日本이 京畿, 忠淸沿海로부터 南, 東海의 漁勞權을 蘇聯과 日本이 울릉도伐木權을 前後하여 要求 및 施行한 바 있다. 大陸勢와 海洋勢의 趨向이 南北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國土分割占領論을 보면 豊臣秀吉(1593)은 京畿, 忠淸, 全羅, 慶尙 4道の 割讓을 要求하였고 英國外相 킴벌리(Kimberley)는 한강을 境界로 하여 以北은 淸이 以南은 日本이 支配하도록 提議(1894)했으며 日本이 山縣有朋은 39°線을 境界로 以北은 蘇聯 以南은 日本이 占有하자고 提議했었다. 드디어 第二次 大戦以後 美蘇는 38°線을 境界로 南韓과 北韓을 各各 3年間(1945~1948) 占領하여 軍政을 施行한 바 있으며 그 餘毒으로 休戰線이 생기게 되었다. 海洋勢와 大陸勢에 依한 分断可能性이 潛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事情에서 볼때 列強의 對韓반도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特徵이 있다.

① 遠近에 不拘하고 17세기以後 모든 海上의 列強들이 한반도의 南方에 関心을 갖는다. 日本, 네덜란드, 미국, 英國, 프랑스, 獨逸, 이태리등이 그 例이다. 特히 日本은 三国時代부터 海洋勢力으로 登場하여 英國의 登場以前期間을 메꾸었다. 따라서 美國以後의 海洋勢力은 中·蘇中에서 어느하나를 包含한 다른 強大國이거나 日本이 再登場할 것이다. 唐이 新羅를 支援했고 蘇聯이 한때 釜山, 영도에 石炭貯藏所를 설치하려 했으며(1896) 울릉도 伐木權을 取得했고 東海에서 日, 露戰을 치른바 있으며 지금도 大韓海峽의 價值를 重視하기 때문에 中·蘇 어느 한쪽이 韓國을 支援하기 위한 海洋勢力으

로 登場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② 大陸勢力이나 海洋勢力이 모두 한반도에서 独占的優位 乃至 独占을 바라나 如意치 않을때는 海洋勢力은 大概 38°線 乃至 39°線까지를 要求하고 大陸勢力도 39°線(평양), 慈悲嶺 乃至 37°30'線(한강)까지를 要求한다. 이는 오늘과 같은 分斷의 長期化로 나타났다.

③ 大陸勢力은 兩分되어 黃海의 北部와 그 沿岸地帶를 利權地帶로 要求하고 東海의 北部와 그 沿岸을 各各 要求한다. 특히 蘇聯은 元山港을 라자렛港(Port Razaret)이라 하여 重視한 바 있다. 海洋勢力은 大陸勢와의 競争을 위하여 單一強者가 利權을 要求하거나 아니면 多者가 統一力量으로 利權을 要求한다. 一者든 多者든 統一된 一者라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西海와 東海의 中部以南까지의 陸地를 要求한다.

④ 강화도, 제주도, 울릉도 등은 海洋勢力에게 전략적 前哨地로 서 特히 매력을 끈다. 거문도가 하밀튼港(Port Hamilton)으로 英國의 注視를 받았음을 볼때 이 일대의 다도해 모두가 이같은 注視의 範圍에 들어간다.

結局 北韓은 海洋勢力에게는 큰 關心이 없으나 南韓은 海洋勢力에게는 當然히 關心對象이 되고 大陸勢力의 어느一方에 依해서도 戰略的 關心地가 되는 것이다. 이는 南韓이 海上交通이나 海上進出에 있어서 海洋勢力에게 뿐 아니라 大陸勢力에게 까지도 重要하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南韓은 戰略的, 交通的 價值가 높기 때문에

恒常 支援勢力을 갖는데 反하여 北韓은 大陸勢力을 支援勢力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兩大支援勢力間의 갈등때문에 支援勢力이 없는 境遇가 있다. 즉 힘의 真空狀態(無重力狀態)가 있는 경우가 많다. 大同江線(統一新羅)에서 鴨綠江-定平線(高麗) 그리고 鴨綠江-豆滿江線(朝鮮)까지 우리 領土가 統一된 것은 바로 北韓 또는 滿洲一帶에서의 <힘의 真空>期를 틈탄 統一이었음은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3. 自主國과 附屬地帶

南北韓을 關係的 位置에서 分析해 볼때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는다.

(1) 南韓: 自主國

南韓의 支援勢力은 어디까지나 支援으로 그 任務를 마치기 쉬우나 北韓의 支援勢力은 占領野慾을 갖기 쉽다. 高句麗와 渤海가 西北外勢에 亡하면서 西北外勢의 領土가 되었던 것이 歷史의 事例이다. 高句麗와 渤海가 西北外勢와 恒常 敵對關係는 아니었으면서도 이에 反하여 한때 우리에게서 海洋勢力이었던 唐軍은 新羅를 支援한 뒤 占領野慾을 갖었다가 쫓겨나고 말았다. 現在 美國은 一定期間이 지나면 물러나리라는 것이 共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中共과 蘇聯은 西北外勢와 東北外勢가 되어 競爭的으로 北韓을 保護 및 支援하는 것으로 보이나 두 勢力중 어느 쪽이나 北韓에 絶對的인 影響을 주게 된다면 이는 첫째, 그만큼 北韓을 屬

國化시키는 意味를 갖는다. 팽팽한 줄다리 기에서 北韓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引力과 向力이 서로 그만큼 投合되기 때문이며 이는 畢竟 屬國化의 길 이 되기 마련이다. 둘째는 두 勢力중 하나는 그 對抗措置로서 반드시 南韓에 接近할 수 밖에 없다. 단 親南韓勢力은 前述한 바와 같이 支援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南韓은 그대로 自主國으로 남는다. 가야를 支援했던 日本, 百濟를 支援했던 日本, 新羅를 支援했던 唐, 李朝를 一時的으로 거의 占領 (임진왜란) 했던 日本, 韓國을 占領 (解放直後의 軍政) 했던 美國, 韓國을 支援하고 있는 美國은 모두 數年 乃至 數十年 사이에 물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關係的位置라는 天賦를 누구도 超越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不問可知이기 때문이다.

(2) 統一外交의 重要性

北韓은 上典國이 二國이기 때문에 上典國의 干涉이 相殺 或은 牽制되어 아직 屬國의 地位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國際的 勢力均衡의 發展은 언젠가 不可避하게 北韓으로 하여금 두 上典國 가운데 하나를 扶하지 않으면 안될 窮地에 서게 된다. 이때 한 上典國은 北韓을 놓지는 것 보다는 차라리 原來의 主人인 南韓에 넘겨주려 할 것이다. 그사이 南韓은 太平을 謳歌한 끝에 지나치게 文弱에 빠져 虛弱할 수도 있고 文武를 兼備한 健全한 狀態라면 西北外勢와 東北外勢 사이의 北韓이 無重力狀態에 있을 때 外交力과 軍事力을 動員하여 힘들이지 않고 北韓을 平定, 統一이 可能할 것이다. 卽, 無血平定이 可能하다.

이같은 推理는 架空的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한반도의 經驗과 特徵에 基礎한 것이니 만큼 充分히 信憑性이 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北韓이 引力과 向力의 投合에 의하여 親一方으 기우는 동안에 韓國은 親一方化에 反感을 품고 親韓으로 기우는 勢力과 協力하고 原來의 同盟勢力과 外交的 및 軍事的 協同을 통해서 北韓을 主人의 품으로 統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統一은 피의 代價를 거의 支払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國際的의 與件을 이렇게 되도록 誘導하기 위한 우리의 外交力이 卽 統一外交가 일어나 積極的이며 眞摯하며 能率的인 것인가가 時期의 早晚을 決定할 큰 關鍵이 아닐 수 없다.

Ⅵ. 強者의 問題点과 使命

1. 強者의 問題点

(1) 強弱에서의 問題

北韓에 比하여 南韓은 天賦的으로 優良한 生活与件을 갖추었고 地理的으로 最後보루를 갖고 있으며 外交的으로 훨씬 獨自性을 갖았음을 살펴보았다. 三大優越條件을 바꾸어 말하면 自活性, 自衛性, 自主性이 되며 이것으로 南韓은 北韓에 比해 主導的, 強者의 位置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強者의 位置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滿足할 수 없는 여러가지의 問題点이 있다. 첫째의 問題点은 地理的 또는 領土的 強弱以外에 國民的 및 政府的要素에 依한 強弱이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人口, 國民性, 産業能力등 國民的 要素까지도 北韓을 훨씬 능가하는 程度라면 더욱 좋은 일이고 最少限 北韓과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人口가 많더라도 貧窮에 쏠려던지 病弱者투성이 라면 좋지않다. 國民性도 團結力이 弱하거나 危機를 目前에 두고 도 政府와 軍과 國民이 相互 不信한다면 좋지않다. 産業能力도 技術開發은 勿論 國民의 勤儉性이 兼해져야 한다. 政府의 質도 獨善的인 主導만이 能事가 아니고 國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治療政治가 아닌 預防政治를 할 줄 알 뿐아니라 目前의 小利보다는 적어도 百年大計의次元에서 國民을 善導할 能力이 있어야 한다. 外交力은 死後藥房門格이 되어서는 안되며 眞摯性과 能動性이 있어

야 한다. 또한 實利를 重視하면서도 國際道義라는 名分을 重視해
 야 될 것이다. 軍事力은 強하다 하더라도 奇襲에 對備되어야 하
 며 여러가지 要因이 良好해야 한다. 이상의 国力要素들이 質, 量
 面에서 어떻게 얼마나 具備되어야 하는지는 周知의 事實인 것임으
 로 詳論을 피하겠으나 한가지 지적해야 할 事項이 있다. 卽 하
 르트만에 依하면 諸般 国力要素中에서 效率的인 政府組織(Effect-
 ive Governmental Mechanism)과 有力한 軍事力(Effective
 Armed Forces)이 致命的인 重要性(Crucial Importance)을 갖
 었다 한다. 1) 모겐소의 用語에 따르면 政府의 質과 軍備에 該
 當한다. 이 두 要素가 致命的 重要性을 갖었다는데는 同感이 간
 다. 但 이말은 다른 여러가지의 国力要素가 具備된 狀態여야 함
 을 前提로 하고, 亂時에 瞬間的인 虛點을 지켜야 하는 把守軍의 役
 割이 重要함을 指稱한 말이다. 政府의 質을 생각해 볼때 南越南에
 서의 구엔 카오키(院高其)政權이나 구엔 반티우(院文紹)政權이 國
 民의 소리를 外面한 채 致富하기에 專念했던 점이 敗亡의 主要原因
 이 되었던 것은 公知의 事實이다. 政府는 實로 自体의 質 또는
 效率性的 如何에 따라 外交力과 軍事力을 優秀하게 또는 不良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人口問題, 國民性, 生産能力등도 左右할 수
 도 있다. 不變要素로 보이는 領土的 諸要素에 對해서도 政策的인
 開發如何에 따라 多少의 價值變化를 시킬 수도 있다. 假令 張寶高
 (弓福)와 忠武公(李舜臣)이 海上進出 또는 海戰을 통해서 制海權
 을 잡았던 다도해일대에 重要한 海軍基地를 建設한다던가 東西高速道

路를 틀어 最南方 根拠地를 政治的努力을 통해서 地理的 價値를 크게 向上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의 質, 政府의 効能性이야 말로 언제나 北韓보다 優勢하지 않으면 안된다. 軍事力도 致命的 價値를 갖임에 틀림없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敗戰할때 奇襲이 가장 큰 原因이었지만 効能性을 갖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部分的인 領土의 喪失은 萬若 喪失된 部分이 致命的 要衝이라고 한다면 그나라는 不遠間 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南韓이 地理的으로 제 아무리 優勢하다 하더라도 政府의 質과 軍事力을 必須的으로 包含한 다른 要素들도 優勢하거나 最少限 比等해야 繼續 強者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領土的 優越은 現在와 같이 不變을 前提로 한다. 假令 不幸히 한강유역인 現 首都圈을 奇襲당해 喪失했다 하면 金剛-小白山脈線이 第一要塞가 되는데 歴史的·戰略的으로 金剛방어선이 強하지 못했다. 高麗가 한강유역에 建國하자 後百濟는 自中之亂으로 亡하였고 新羅는 降服하고 말았다. 勿論 只今은 後百濟나 新羅처럼 分裂되지 않았기 때문에 錦江防禦線이 그만큼 強力할 것이며 그것마저 突破되는 境遇에도 畿湖地方住民들은 大部分 小白山脈 東南地方으로 避難하면서 最後보루를 구축하겠지만 이쯤 된다면 不可避하게 過去의 新羅처럼 어느 強力한 外國의 支援을 必須的으로 불러들여야 하며 그로 因한 後遺症을 甘受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如何한 境遇에도 現 首都圈을 死守하겠다는 政府의 方針은 賢明한 것이었다. 또하나 萬若 北韓이 제주도나 大邱를 占領한

다고 假定한다면 南韓은 包圍網속에서 枯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不幸히 없도록 萬般의 態勢가 갖추어져야 한다. 國防의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2) 同盟의 問題

北韓은 中共과 蘇聯을 背景으로 하고 南韓은 美國과 日本을 背景으로 하여 休戰線에서 均衡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現在의 同盟 또는 準同盟이 恒久不變일 수 없다는 데서 問題가 있다.

첫째, 美國은 遠距離에 있는 나라이다. 科學技術은 汎世界的으로 普遍化 되어 相互 均衡을 이룰 수 있지만 地理的遠近은 變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英國, 프랑스등 歷代의 強大國들이 遠距離 殖民地에서 몇十年 또는 百年内外에서 退却하였다. 韓國은 美國의 殖民地도 아니어서 實利面에서 美國에게 別로 價值가 없다. 게다가 에치슨라인 닉슨 독트린, 카터의 撤軍 計劃등 잇따른 論調에서 볼때 美國의 撤收는 目前에 迫到했다고 말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韓·美 防禦條約이 언제까지 有效하느냐에 問題가 있다.

둘째, 日本은 우리의 準同盟國이다. 同盟面에서는 韓·美關係만 못하지만 地理面에서는 日本의 對韓利害關係가 美國의 對韓關係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日本은 機會있을 때마다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 (닉슨·사토 성명 69.11.21) "한반도의 平和와 安全이 日本 및 極東의 安定에 重大한 關係가 있다" (山下 日本防衛庁長官: 79.7.25) 는 등의 聲明을 發表하면서 神

經을 쓰고 있다. 따라서 긴 眼目에서 볼때는 日本이 언젠가는 오히려 美国보다 더 強한 同盟으로 浮上될 可能性이 있다. 다만 日本의 對韓利益은 相當히 切實한 것인 反面 牽制意識도 強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分断을 永久化시키는 方向으로 생각할 憂慮가 있다.

셋째, 對中 對蘇關係이다. 中共이나 蘇聯은 北韓의 同盟이다. 그러나 中共과 蘇聯이 敵對關係에 있기 때문에 北韓은 苦悶하고 있다. 共產主義와 科學技術을 가르쳐 준 蘇聯을 따르느냐 어려울 때 도와주고 (韓國戰介入) 溫情을 듬뿍 주는 中共을 따르느냐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或者는 中·蘇和解도 可能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마치 漢代 初에 많은 貴重品을 蒙古에 提供 (和親策) 하면서 平和 共存을 했듯이 中共의 經濟力이 蘇聯보다 優勢해진 뒤에 經濟的 支援이 이루어지는 境遇라야 可能한 것이고 그 以前에는 變함없는 원수 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中·蘇和解가 언젠가 있을 수야 있지만 그것은 遙遠하고 條件附的인 問題이다. 그렇다면 窮極的으로 敵對的인 두 上典國中 어느편에 北韓이 붙느냐가 문제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理由로 北韓은 窮極的으로 卽 危機에 處했을때 蘇聯과 密着하리라고 본다. 첫째, 힘센者의 壓力 때문이다. 蘇聯은 中共보다 強國이다. 強國의 壓力 또는 影響力이 平時에는 보잘 것 없지만 危機나 戰時에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마치 韓國이 日本보다는 美國의 影響을 크게 받는 것과 같다. 둘째, 強國의 도움이 必要하다. 우리나라는 歷史的으로 東北

勢力인 金나라와 西北勢力인 宋나라 어느쪽과 가까워야 하느냐로
 苦心하였다. 親宋 對 親金, 親明 對 親蒙, 親明 對 親清 등 政
 策들이 그것이다. 李朝때 親明政策을 쓰면서도 姜弘立將軍을 反
 後金(清의 前身) 親明作戰에 加擔시키면서 勢不利하면 強者에게
 降服하도록 했던 史例는 北韓이 將次 어느편에 붙게 될 것임을
 애기해 준다. 셋째, 蘇聯은 北韓을 中共편에 뺏긴다면 東亞에서
 의 拠点을 거의 喪失하는 境地에 이른다. 따라서 北韓만은 불
 들려 할 것이다. 여기서 中共의 立場이 難廻해 질 수 밖에
 없다. 中共은 不可避하게 南韓을 支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理由는 ①美, 日, 中共間의 所謂 連衡策에 부심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連衡策에 關聯된 나라가 바로 韓國이다. ②中共과
 北韓은 多情한 關係임으로 사랑싸움이 잦을 수 있다. 만약 北
 韓이 背信한다면 사랑했던 만큼 증오감이 強해 질 것이며 그
 報償을 韓國의 支援 또는 韓國과의 友好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歷史에서 高句麗를 치고 新羅를 支援했던 일은 吟味의 價值가
 있다. ③中共의 海上活動은 東海에서는 弱勢에 있더라도 黃海에
 서는 威容을 자랑할 수 있다. 中國의 歷代海軍은 鎮南浦가 아
 니면 仁川 또는 郡山港을 進出橋頭堡로 하였다. 또한 濟州海峽
 은 交通의 要地이기도 하다. 따라서 自己의 國益과 活動半徑에
 맞는 範圍內에서(守分) 友國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推理가 나오더라도 同盟의 離合으로 因한 國家的
 苦衷은 亦是 크게 마련이며 努力如何에 달렸다는 問題點을 提示

한 것이다.

2. 強者의 使命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은 크게 分類하여 內政과 外交이다. 나라가 하나의 強力한 組織인 以上 領土를 지키기 위하여 對內的으로 政治가 있어야 하며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處身하기 위하여 對外的으로 外交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內政과 外交는 日常業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日常業務以外에 統一이라는 課題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現狀이 곧 우리나라가 처한 特殊한 狀況이다.

우리나라를 特殊한 狀況에 있게 한 <統一課題>는 우선 몇가지의 條件을 具備케 한다. 그것은 곧 國家富強과 統一外交라 하겠다.

(1) 國家富強

南北對峙狀況에서 一次的課題는 國家의 富強이다. 統一以前에 生存條件이 갖추어져야 하며 「生存」이라는 前提下에서 統一이 있게 된다. 勿論 敗亡 卽 降服도 統一이 可能하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不可能하다. 그 理由는 ①弱者가 強者를 統合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新羅末期에 弱者인 新羅가 降服하였지 強者인 高麗가 降服할 수는 없었다. ②南·北韓 單獨對座로는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다. 蘇聯과 中共 이외에 美國과 日本이 한반도문제에 利害關係가 結려있는 以上 어느 한쪽의 降服만으로도 통하지 않는다. ③人類의 理想에 좀더 가까운

生活哲学과 生活様相을 單純히 統一이라는 代價를 받고 바꾸려 한다면 반드시 反撥이 생긴다. 換言하면 統一을 위해 理念을 바꾸려는 어떤 「理想」은 그것을 反對하는 「現實」에 의해 霧散되고 만다. 結局 政治權力이라는 實力對決의 様相으로 發展하여 現在와 같은 南北對峙로 復歸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쪽도 降服할 수 없는 立場이기에 對峙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對峙가 平和共存은 아니다. 우리는 한차례의 大規模 侵略을 받았고 여러 차례의 武裝寄襲을 받았다. 休戰協定違反事例은 너무나 많이 당했다. 우리의 生存權保護가 時急한 課題로 登場한다. 그런데 單純하고 守勢的인 生存權保障努力은, 첫째 原来的 強者인 地位를 同等者로 格下시키고 둘째, 祖国의 分斷을 永久化하게 한다. 따라서 強者의 地位를 固守하고 積極的으로 統一을 主導하기 위해서는 倍加된 努力으로 北韓에 비해 월등한 強者의 地位를 유지해야 한다. 國家가 法人體이나, 契約體이나, 有機體이나에 대하여 學說이 紛紛하나 法人體나 契約體라 하더라도 富強이 필요하고 有機體라 하더라도 더욱이 富強이 要請된다. 하물며 統一聖業을 위해서는 第一義的 要件으로 富強이 要請된다는 것은 當然한 事理라 하겠다.

(2) 統一外交

外交는 機能別로 分類할때 國家威信이나 國家間 政治問題에 關聯된 政治外交, 軍事同盟이나 支援과 關聯된 軍事外交, 貿易등 經濟問題와 關聯된 經濟外交, 그리고 社會事業이나 文化交流와 關聯된 文化外交등이 있다. 이 分類에 立脚할 때 政治外交에는 國家威信問

題나 領土問題 또는 民族問題 解決등을 위한 交渉이 主로 包含된다. 統一問題도 屬性에서는 政治外交에 가깝지만, 對峙者와의 統合問題이기 때문에 少數人이나 一部 領土의 交換 또는 國家威信回復程度의 一般的인 政治問題를 超越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政治外交와 分離하여 統一外交라고 筆者는 命名한다. 그런데 統一外交에는 當事者會談인 南北對話와 關係國會談이 包含된다.

南北對話는 赤十字會談, 調節委員會 會談 및 總理會談 豫備會談등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會談도 效果와 持續性面에서 成功한 것이 없다. 그 原因은 北傀政權이 偏見과 妄想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첫째, 武力이나 暴力으로 兩韓을 統合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實踐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可能性도 否認하지 않고 있다. 둘째, 그들은 또 大民族會議(全民族會議)라는 自國內에서의 共產黨集權의 方式을 南北間에도 適用하려 하고 있다. 셋째, 그들은 美軍을 撤収시키지 위한 名分을 얻기 위하여 聯邦制를 提示하기도 한다. 어느 方案에나 統一問題의 北韓主導를 위한 執念이 깔려있음이 共通點이다. 이에 對하여 우리政府에서는 첫째로 그 不可能性에 關해서 忍耐를 갖고 納得시켜야 한다. 當爲性이야 어떻든 現實論에서 볼때 四強과 南北雙方이 對峙하여 있는 限 武力統一이 不可能하며, 主權이 嚴存하는데 大民族會議를 해 본들 決議가 나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決議가 나오더라도 雙方의 責任있는 當局이나 四強에게 全員一致로 받아들여 질 수는 없다는 것, 韓國問題뿐만 아니라 世界戰略의 一環이기도 한 駐韓美軍의 撤収가 不可能하

다는 것등을 納得시켜 北側이 率直이 是認토록 해야 한다.

金日成이 國運을 理解하고 民族的良心을 갖게 된다면 多幸이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國家的 悲劇이 있을 수 있다. 即, 北韓땅을 西北 또는 東北 外勢에 完全히 팔아넘기려는 試圖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歴史的으로 高麗 明宗때 (1174 - 76) 西京 留守 趙位龍이 鄭仲夫政權에 反對하여 싸우다가 勢가 不利해지자 慈悲嶺 以北을 빼어주겠다는 條件으로 金나라에 援兵을 要請했다가 失敗한 事實이 있다. 제 불에 겨워 對南 憎惡感이 사무치고 中·蘇가 서로 牽制하여 北韓의 救援要請에 쉽게 呼応치 않을 境遇 金日成이나 그의 後繼者가 趙位龍과 같은 생각을 안하리라는 保障은 없다. 따라서 最少限 北韓이 當分間 어느 一方勢力의 屬國格으로 轉落하는 것쯤은 或 然認하는 限이 있더라도 自進하여 他에 併合되는 것 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南北關係에서의 要注意事項이 되겠다. 여기에서 強者의 使命은 繼續 힘의 優位를 堅持함과 同時에 寬大한 包容力도 있어야 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VII. 結 論

南北韓의 運命에 가장 持久的이고 決定的인 役割을 하게 될 領土를 檢討하였다. 結論적으로 南韓同胞는 北韓同胞보다 훨씬 福받은 地域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知德體에서 優越하고, 背水陣을 치고있기 때문에 自衛能力에서 優越하며, 交通의 要地로서 價值는 크면서도 強大國과의 距離가 比較的 멀기 때문에 自主獨立地位에서 優越함을 알았다. 따라서 北韓이 自主獨立的 單位가 될 수 없는 枯死型 位置에서 몸부림 치다가 畢竟 自己의 主人인 南韓에 統合될 것임도 알았다. 또한 南韓은 北韓을 統合할 때 國際的保障을 받을 수 있고 北韓同胞들의 呼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無血平定을 通해 目的을 達成하게 될 것임도 알았다. 다만 그 時期만은 國際的與件의 成熟과 우리들의 努力의 質과 量에 달린 것임으로 언제 라고 豫測하기 困難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絶對的인 使命感을 갖지 않을 수 없다. 北韓同胞와 北韓땅을 金日成 一黨의 손에서 救出해야 되는 受任者가 主人인 바로 南韓이기 때문이다.

適者生存原則과 弱肉強食原則은 國際政治의 原則이기도 하다. 適者이며 強者인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짐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까마득한 옛날 孟子 (B.C. 372 - B.C. 289)가 벌써 가르쳐 주었다.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고 (孟子 . 公孫丑下). 即 그 는 國際的인 大風調 (天時)도 地理的인 好條件 (地利)만은 못하며 地理的인 好條件도 指導者와 國民의 團合 (人和)만은 못하다고 指

指摘한 것이다. 事實 本作品中 地理가 決定的役割을 할 것이라는 것은 다른 條件 即 國民的要素와 政府的要素가 最少限 北韓의 그것과 均衡狀態여야 함을 前提로 하였다. 또 前提 以前에 地理的 條件은 南韓의 政府的 및 國民的要素가 自然히 北韓의 그것보다는 優勢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長期的이고 持續的인 現象에서 그렇고 瞬間的・단기적으로도 빈틈없이 그렇게 된다고는 斷言할 수 없는 것이기에 守勢的地形임에 注意를 喚起시킨 바 있었다. 따라서 孟子가 人和를 가장 重視했던 것은 우리의 境遇에서 볼때 瞬間的인 빈틈을 警戒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瞬間的인 빈틈에 對備하는데 가장 重役을 맡은 者는 政府和 軍隊임을 指摘한 바 있다. 그런데 政府和 軍隊의 力量은 國民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三者間의 <人和>에 成功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地理的 特殊性에 最善의 調和를 이루는 狀態이다. <政府・軍隊・國民의 人和> 이것이 結論임과 同時에 使命으로 抬頭된다.

《 註 》

< Ⅱ >

- 1) 孟子·尽心下：「諸侯之寶三：土地·人民·政事」
- 2) 閔丙台著，政治學，普文閣，1958，P.167（再引用）
- 3) 上揭書，P.172（再引用）
- 4) 孟子·公孫丑下：「孟子曰：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
- 5) 閔丙台著，前揭書，P.168
- 6) Harold and Margaret Sprout,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Rosenau, James N.(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Revised edition, 1969. P.41
- 7) Padelford, Norman J. & Lincoln, George A.,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3rd Printing, Macmillan Company, 1963. PP.77 - 80
- 8) 姜錫午著，新 韓國地理，改定版，새글사，1979. P.7
陸軍士官學校，軍事地理，博英社，1980. P.117
(姜氏의 「政政的位置」用語 代身 陸士의 「關係的位置」用語에
따랐다)

< III >

- 1) 姜錫午著 , 前掲書 , PP.81-83
車鍾煥外 共著 , 韓國의 氣候와 植生 , 瑞文文庫 151, 瑞文堂 ,
1974. PP.53-62
- 2) 姜錫午 , 前掲書 , P.415
- 3) 李容弼外 共著 , 南北韓總力趨勢比較 ,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1979 , P.263
- 4) 上掲書 , PP.260-261
- 5) 上掲書 , P.264
- 6) 上掲書 , P.266
- 7) 姜錫午著 , 前掲書 , P.521
- 8) 上掲書 , PP.522-524 參照

< IV >

- 1) 陸軍士官學校 , 前掲書 , P.144
- 2)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ition, Alfred A. Knopf, 1973. P.113
- 3) 筆者가 三國史記에서 調查한바 百濟가 漢江流域에 있는 동안까
지 高句麗와 靺鞨로부터 40회나 侵略 및 약탈을 당했으나 新
羅는 19회밖에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比較的 小規模였다.
- 4) 正確한 証據는 없지만 高句麗의 半島部 人口를 50%로 잡고 ,

그가운데 50% (全体의 25%) 가 평양以南에서 살고 있었다고
計算할때 비슷한 數値가 나온다.

- 5) 이 10萬名도 正確한 計算은 아니나 921-979年間 高麗로 流
入한 記錄上의 渤海人數가 約7萬인데 未記錄分도 있을 것으로
보면 約 10萬으로 볼 수 있다. (高麗史·世家·卷第一 및 第
二 參照)

< V >

- 1) 朝鮮日報 (80.10.12) 參照
- 2) Murdock.G.P., How Culture Changes in Shapiro, H.L.
(ed), Man,Culture and Society, 1956, PP.247-260

< VI >

- 1) Hartmann, Frederick, H., The Relations of Nations,
5th ed, Macmillan Publishing Co., 1978. PP.66-68